'위험과 안전' 사회적 인식과 지역적 분포

조권중 신상영 최지원

Risks and Safety: Citizens' Perception and Regional Attribute



'위험과 안전' 사회적 인식과 지역적 분포

연구책임

조권중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신상영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최지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서울 안전' 인식, 사회계층적 특성별 차이 위험지역 분포는 취약계층 분포와 상관성

서울은 시설 노후·대형화, 안전취약인구 늘어 '위험요인 증가'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의 세계화, 정보화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성 변화가 도시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 조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 서울은 각종 도시시설과 활동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비탈면, 지하 공간 등이 개발됨으로써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이 상존한다. 서울시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주요 재난·재해를 살펴보면 침수, 산사태, 화재, 시설물 붕괴, 폭발사고 등이 주된 유형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도시공간은 인구와 시설의 고밀화와 함께 노후화가 현격히 진행되고 있다. 50년 넘는 노후 시설의 다수(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가 보여주듯이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외국인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층의 증가 및 계층 양극화의 심화가 현저하다. 이는 안전취약인구가 늘어나며, 생활안전의 불안요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위험요소 불평등한 분배로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복지 필수

위험사회는 위험요소의 불평등한 분배를 보여주고 있다. 위험 인식이 사회적 위험지위를 결정하고, 그 위험지위가 정치적 과정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취약계층은 경제적·사회적·인구학적 조건의 취약성에 따라 위험에 불평등하게 노출되고 있다. 새로운 위험환경의 등장에도 취약계층은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 제약 때문에 위험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및 준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되었고, 위험상황으로 인해 계층 하락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복 지국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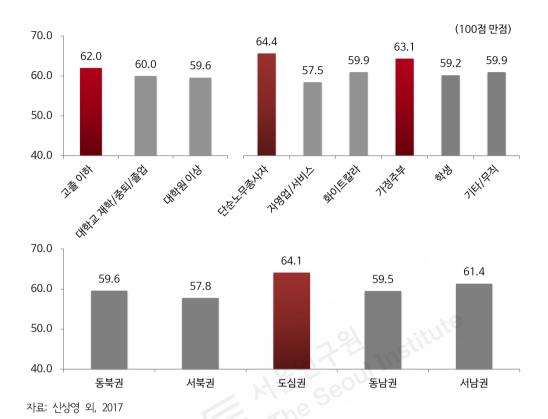


[그림 1] 위험의 불평등

남성보다 여성, 단독·아파트보다 원룸주민이 더 "서울 불안"

2014년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조권중, 2014)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60.9점)이 서울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63.5점)가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보다 서울의 위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종사자(62.3점)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62.5점)이 서울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더 크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과 정보에 민감한 집단의 위험도 인식이 더 높은 특성이 있다.

2017년 설문조사(신상영 외, 2017)에서는 서울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에서 집단별로 단순노무종사자(64.4점)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57.4점)는 가장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64.1점) 거주자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취약한 계층들의 위험도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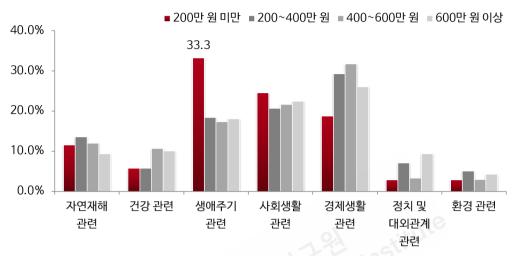
[그림 2] 사회경제적 특성별 서울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

30대는 경제생활, 60대 이상은 생애주기 위험 가장 취약 인식

2014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응답비율은 30대 (35.5%), 사회생활 관련 위험 응답비율은 20대(27.7%), 생애주기 관련 위험 응답비율은 60대 이상(25.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직업군은 화이트칼라(33.1%)와 블루칼라(31.3%)이다. 그 외에 블루칼라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 (28.1%), 화이트칼라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27.6%)이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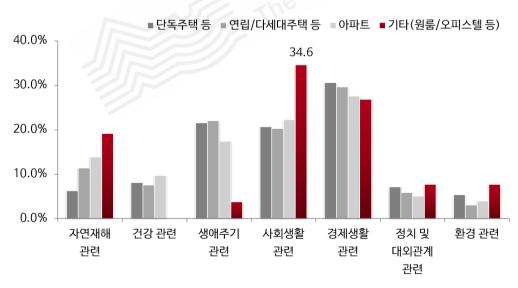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는 오히려 생애주기 관련 위험(33.3%), 사회생활 관련 위험(24.6%)이 더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

고 보는 비율(34.6%)이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에 비해 특히 높다. 도심권을 비롯하여 강남지역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서북권은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조권중, 2014).



자료: 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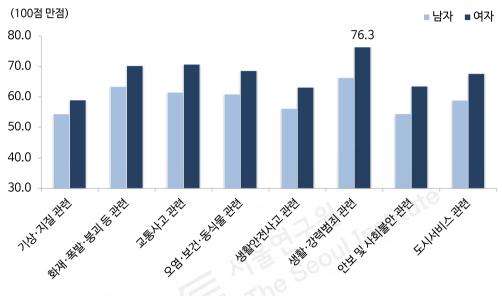
[그림 3] 가구소득별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4] 주택유형별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

2017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재난·사고 중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은 생활·강력범죄 관련 위험(76.3점)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모든 재난·사고의 발생빈도와 피해정도에 민감하다. 학생과 가정주부, 20~30대 젊은 집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모든 차원의 재난·사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높다.



자료: 신상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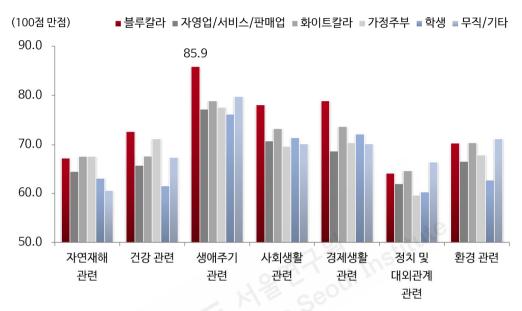
[그림 5] 성별에 따른 재난사고 차원별 위험도 인식

서울 시민들, 실업·빈곤 등 경제생활, 노후 생계문제에 더 민감

시민들은 실업, 빈곤 등의 경제생활이나 노후의 생계문제 등에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 2014년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68.6점), 생애주기 관련 위험(68.1점)이 본인에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을, 60대 이상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다. 블루칼라 직업군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민감하게 인식한다.

2014년 조사에서 향후 가장 증가할 위험으로 생애주기 관련 위험(78.3점)을 택한 응답이 많았다. 특히 블루칼라 직업군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85.9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향후 증가한다는 인식도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기타 주택유형 거주 자는 다른 계층과 달리 사회생활 관련 위험(83.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안전이 취약할수록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인적 재난 등의 위험에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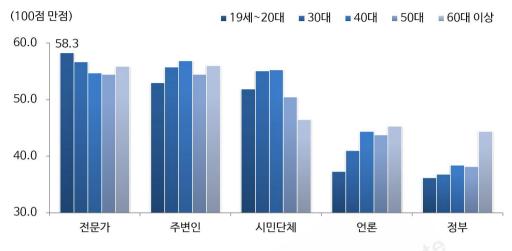
[그림 6] 직업에 따른 위험분야별 향후 증감전망

위험 관련 지식, 60대 이상은 TV, 20·30대는 인터넷 이용해 획득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관련 지식을 TV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93.4%)에서,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20대(76.4%)와 30대(7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민들은 매체를 통해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70.4점)를 접했을 때 두려움이가장 컸다.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로 인한 두려움은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75.0점)와기타 주택유형 거주자(78.9점)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나 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전문가(56.0점), 주변인(55.3점), 시민단체(51.9점)가 높은 반면, 정부(38.8점)나 언론(42.4점)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20대(58.3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44.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북권에서는 시민단체(59.3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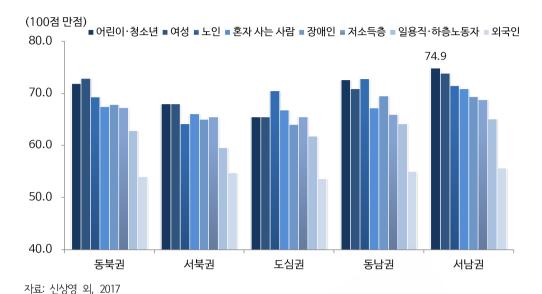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7] 연령대에 따른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

동북권은 여성, 도심권은 노인, 서남권은 어린이 청소년 가장 위험

2017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취약계층의 위험을 높이 인식(67.0점)하고 있으며, 그 중 어린이·청소년(72.2점)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여성(71.8점), 노인(70.2점), 혼자 사는 사람(68.3점) 순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은 여성(72.9점), 도심권은 노인(70.5점), 서남권은 어린이·청소년 (74.9점)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남권은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서북권은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그림 8] 권역별 취약 인구집단 위험도 인식

중구 등 도심권은 화재·범죄·안전사고, 성북구는 자연재해에 취약

2016년 발표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에서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교통, 자연재해 부문이 1등급, 화재 부문은 2등급, 자살, 감염병 부문은 3등급, 안전사고 부문은 4등급, 범죄 부문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등급이 하락했다.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이 화재, 범죄, 안전사고 등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지수가 낮고, 성북구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국민안전처, 2016.12).

2016년 서울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10개 지역으로 2010년 2개 지역에서 늘어났다. 서초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4개 지역을, 강서구는 3개 지역을, 중랑구도 3개 지역을 지정했다(하천관리과·산지방재과, 2016).

서울의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주로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2015년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강남구(8,512건)에서 가장 많고, 영등포구, 송파구, 관악구 등에서도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2015).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동남권은 화재사고 취약지역이다. 2015년 화재 사고 발생 건수는 강남구가 504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금천구가 131건으로 가장 적다. 그의 강서구, 관악구, 종로구 등도 화재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 2015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3,970건)를 비롯한 송파구, 서초구 등 오피스 밀집지역이다. 서울의 119 출동 건수는 강남구가 2015년 기준 9,389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리고 노원구도 6,000건 이상 발생했다(서울통계, 2015).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강북구(30.6명), 동대문구(28.4명)가 비교적 높은 반면, 서초구(15.2명)가 가장 낮다(통계청, 2015).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감염병 해외 유입은 전년보다 19% 증가했고, 최근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적다(생활보건과,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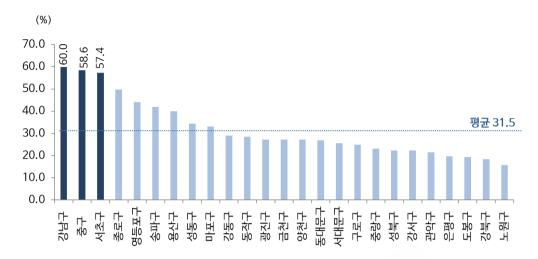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은 송파·강남구, 노인은 강북·종로·중구에 많이 거주

서울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송파구(119,209명)와 강남구(104,806명)에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 여성들은 특히 송파구(337,861명), 강서구(301,127명), 강남구(300,070명)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자치구별 여성의 비율은 강남구(52.1%), 서초구(51.9%), 송파구(51.2%) 등 동남권 지역에서 높았다.

자치구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도심권을 비롯하여 강북 지역이 높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강북구(15.7%), 종로구(15.2%), 중구(15.1%)가 높은 반면, 송파구(10.2%), 강남구(10.4%), 서초구(10.9%)는 낮다.

서울의 1인가구는 2015년 29.5%로, 3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족'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중 51.2%가 여성이다. 1인가구는 고시촌이 있는 관악구와 대학가, 도심권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비율은 관악구가 43.9%로 특히 높다. 그 외 중구,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지역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을 살펴본 결과, 노원구(4.3%), 강북구(4.1%)는 높은 반면, 서초구(1.0%), 송파구(1.4%)는 매우 낮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60.0%), 중구 (58.6%), 서초구(57.4%) 순이다. 주택보급률은 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9개 자치구에서 100%가 넘는 반면. 관악구의 주택보급률은 89.1%로 가장 낮았다.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그림 9] 서울의 구별 재정자립도

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 많은 지역은 유사…지살률과 상반

우선 위험 변수 간의 관계에 따르면, 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서로 유사하나, 자살률과는 오히려 상반적이다.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이나 여성의 절대적 수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어린이·청소년이나 여성이 위험한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 가능하다. 1인가구는 범죄, 안전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는 범죄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모두와 상관성이 있다.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 발생이 적고, 자살률은 높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노인 비율, 자살률과 정적 상관성, 재정자립도와는 부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이 높은 지역은 노인이 많고, 자살률도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범죄, 화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자살률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보급률은 유일하게 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갖고 있어, 주택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방법	3
02 위험과 안전의 형평성 이슈	6
1_현대사회의 위험과 재난 동향	6
2_위험과 안전의 불평등 연구 검토 03 위험과 안전 인식의 사회계층적 특성 1_서울 시민의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 2_위험 관련 정보의 영향	10
03 위험과 안전 인식의 사회계층적 특성	16
1_서울 시민의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	19
2_위험 관련 정보의 영향	36
3_시민의 안전의식 수준	44
04 위험과 안전의 지역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50
1_위험과 안전의 지역 분포	50
2_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취약계층	70
05 안전 서 울을 위한 함의	86
1_결과 요약 및 시사점	86
2_안전 서울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93
-L D-1	05
참고 문 헌	95
Abstract	98

丑

[표 2-1] 서울의 여건 변화와 도시안전에 대한 시사점	9
[표 3-1] 위험의 유형별 분류	17
[표 3-2] 재난사고의 유형별 분류	18
[표 3-3] 위험요소 중 서울의 취약 분야	25
[표 3-4]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 인식	29
[표 3-5] 위험요소별 향후 증감 여부 전망	32
[표 3-6] 재난사고의 계층별 주요 특성	35
[표 3-6] 재난·사고의 계층별 주요 특성 [표 3-7] 위험 관련 정보획득 경로(복수응답) [표 3-8]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 인식 정도	37
[표 3-8]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 인식 정도	40
[표 3-9]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	43
[표 3-10] 권역별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위험도 인식 정도	47
[표 4-1] 특별・광역시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51
[표 4-2] 서울의 구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54
[표 4-3] 2010~2011년 자연재해 발생 현황	56
[표 4-4] 서울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58
[표 4-5] 서울의 5대 범죄 발생	60
[표 4-6] 서울의 구별 교통사고 현황	64
[표 4-7] 서울의 119 구조활동 실적	66
[표 4-8]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69
[표 4-9] 서울의 노후주택 현황	80
[표 4-10] 상관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81
[표 4-11] 위험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84

그림

[그림 1-1] 위험과 안전의 불평등 형성	3
[그림 2-1] 위험의 불평등	10
[그림 3-1] 서울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_성별·연령·교육수준·직업	19
[그림 3-2] 서울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_가구소득·주택유형·권역별	20
[그림 3-3] 서울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_교육 수준· 직업·권역별	22
[그림 3-4]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_연령별	23
[그림 3-5]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_직업별	23
[그림 3-6]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_가구소득별	24
[그림 3-5]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_직업별 [그림 3-6]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_가구소득별 [그림 3-7]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_주택유형별	24
[그림 3-8]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_연령별	27
[그림 3-9]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_직업별	27
[그림 3-10]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_가구소득별	28
[그림 3-11]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_주택유형별	28
[그림 3-12] 위험분야별 향후 증감 전망_직업별	31
[그림 3-13] 위험분야별 향후 증감 전망_주택유형별	31
[그림 3-14] 재난·사고 차원별 위험도 인식_성별	34
[그림 3-15] 재난·사고 차원별 위험도 인식_직업별	34
[그림 3-16] 위험 관련 정보획득 경로_연령별	36
[그림 3-17]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_가구소득별	38
[그림 3-18]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_주택유형별	38
[그림 3-19]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_직업별	39

[그림 3-20] 안선 관련 정보 줄저별 신뢰노_연령별	41
[그림 3-21]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_교육수준별	42
[그림 3-22]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_권역별	42
[그림 3-23]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만족도_성별·연령별	44
[그림 3-24]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역량에 대한 평가_권역별	45
[그림 3-25] 취약 인구집단별 위험도 인식	46
[그림 3-26] 취약 인구집단별 위험도 인식_권역별	47
[그림 4-1] 서울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변화	51
[그림 4-2] 분야별 지역안전지수의 자치구별 등급	52
[그림 4-3] 서울의 주요 침수피해지역 분포	57
[그림 4-4] 서울의 산사태 발생지역 분포	57
[그림 4-5] 서울의 범죄 발생 현황	59
[그림 4-4] 서울의 산사태 발생지역 분포 [그림 4-5] 서울의 범죄 발생 현황 [그림 4-6] 서울의 구별 5대 범죄 발생 현황	60
[그림 4-7]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	61
[그림 4-8] 서울의 구별 화재 발생 건수	62
[그림 4-9] 서울의 구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63
[그림 4-10] 서울의 구별 교통안전지수	63
[그림 4-11] 서울의 1만 명당 구조구급 이용률	65
[그림 4-12] 서울의 구별 119 출동 건수	66
[그림 4-13] 서울의 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68
[그림 4-14] 서울의 구별 어린이·청소년 인구 비율	71
[그림 4-15] 서울의 구별 여성인구 비율	72
[그림 4-16] 서울의 노인인구 비율 변화	73
[그림 4-17] 서울의 구별 노인인구 비율	73
[그린 4-18] 서운이 구별 1이가구 비용	75

[그림 4-19]] 서울의	구별 여성 1인가구 비율 7	5
[그림 4-20]] 서울의	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 7	6
[그림 4-21]] 서울의	구별 재정자립도 7	7
[그림 4-22]] 서울의	구별 주택보급률 7	8
[그림 4-23]] 서울의	구별 노후주택 비율 7	9

목차 / xv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과 목적
- 2_연구내용과 방법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과 문제 제기

- 인구 사회집단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도시의 안전 기획에 중요
 - 서울 도시 사회에 대한 위험사회의 시각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주요한 흐름임. 최근 일련의 사태로 도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위험과 안전은 제반 환경 변화에서 도시에 대해 일반적 특성을 지니지만, 이에 대한 노출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사회계층에게 차별적인 양상음 제시
- 서울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계층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제기
 - 서울 시민이 인식하는 위험(Risks)의 특성은 무엇인가?
 - 시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위험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위험과 안전 분포의 지역적 특성은 어떠한가?
 - 안전 재분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 위험에 대한 안전(Safety)과 보장(Security) 수요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역할 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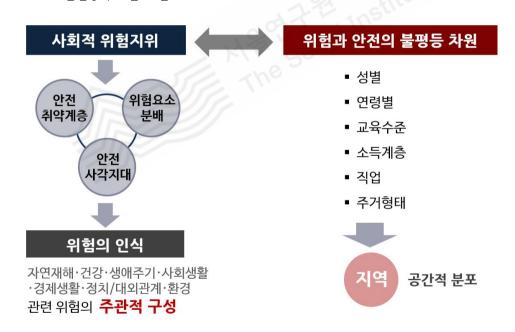
2) 연구목적

- 서울의 안전 관련 문제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형평성과 사회 불평등의 시각에서 재조명이 필요
 - 위험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적 분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과 안전의 형평성 문제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함. 특히 '위험의 불평등한 배분'과 '안전의 재분배'의 공간적 특성을 제시하여 서울 안전도시 기획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2 연구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주요 내용
 - ㅇ 위험과 안전의 형평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의 논점 정리
 - o 위험과 안전 인식의 사회경제적 계층 특성
 - o 위험과 안전 대응의 공간적·지역적 분포 특성
 - o 안전정책의 함의 검토



[그림 1-1] 위험과 안전의 불평등 형성

- 보고서는 되도록 그림과 표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안전과 위험의 형평
 성 문제를 간략하게 기술
 - 2장에서는 위험과 안전에 관한 기존 연구의 맥락에서 불평등과 형평성, 취약계층의 논의를 소개함. 3장에서는 시민의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계층적 특성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객관적 위험요소 노출의 지역적 분포를 검토
 -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

2) 연구방법

- 어울 시민의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서울의 지역별 위험과 안전 수준, 지역별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기존의 조사 및 통계 데이터들을 토대로 분석
 - 위험과 안전의 격차와 형평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역(25개 자치구)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지역단위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안전의 관련성 을 제시
- ㅇ 문허연구
 - 위험과 안전의 격차와 형평성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o 위험과 안전의 주관적 인식 분석
 - 서울 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조사(조권증, 2014)
 - 서울의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신상영, 2017)
- ㅇ 위험과 안전의 지역적 격차에 대한 지표 분석
 - 「서울통계의 지역 데이터를 통한 안전 수준
 -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검토
- o 안전 격차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 「서울통계 의 지역 데이터를 통한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특성 분석

02

위험과 안전의 형평성 이슈

- 1_현대사회의 위험과 재난 동향
- 2_위험과 안전의 불평등 연구 검토

02 위험과 안전의 형평성 이슈

1_현대사회의 위험과 재난 동향

- 1) 다양한 위험의 등장과 증가
 - o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의 의미
 -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의 세계화, 정보화 흐름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성의 변화가 도시의 트렌드를 형성함.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또한 빠르게 증가
 - 현대사회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돌출되는 위험과 이로 인한 불안이 특징임(조권중, 2014). 위험사회론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파국적인 위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회(Beck, 1992)
 - 위험은 "일정 기간 내에 혹은 어떤 자극에 의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그 원인이나 전개 과정, 혹은 그 피해의 결과가 사회적 성격을 띠며, 국민의 생활이나 사회의 존립기반에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나 현상"으로 정의됨(이재열, 2010). 일반적으로 "위험은 어떠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피해를 나타내곤 한다"고 정의(정지밤류현숙, 2009)
 - o 축적된 위험요소로부터 나타나는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 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동법 제3조)하고,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
 - 재난은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위험요 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나 사회 하위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정의(이재열, 2006)

- o 한국사회 내 다양한 위험의 등장과 증가
 - 국민들이 인지하는 중요한 위험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옴. 서구에서 출현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주요한 사회적 쟁점
 - 서울은 도시공간의 고밀화·노후화·지하화가 급격히 진행됨(신상영, 2015). 신 사회위험의 등장, 경제적 양극화와 안전취약인구의 증가, 국제화 등으로 도 시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대형 재난이 증가
- ㅇ 최근 대형사고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안전과 방재의 중요성 증대
 - 다양한 형태의 자연적·인적·시회적 재난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됨. 재 난이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므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기술의 개발이 시급(정진엽, 2012)

2) 서울의 위험과 재난 문제

- o 최근 서울에 나타난 폭우재해, 전 세계적인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인식이 제고(신상영, 2015)¹⁾
 - 각종 도시시설과 활동들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비탈면, 지하공간 등이 개발됨으로써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이 상존함(신상영, 2015). 서울시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주요 재난재해를 살펴보면, 침수, 산사태, 화재, 시설물 붕괴, 폭발사고 등이 주된 유형
 -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풍수해가 빈발하는 추세로, 특히 2011년 집중호 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초래
 - 또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사고(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숭례문 화재사건(2008년) 등과 같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대규모 인적재난이 발생

¹⁾ 신상영, 2015, "안전문제에 대한 세계 동향과 서울시의 도시안전 발전방향", 「세계와 도시」 7호

- o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울의 위험과 도시안전 문제의 변화
 - 인구특성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 경제시스템의 변화, 기술발전 등 사회경 제적 변화, 도시공간의 변화, 기후환경의 변화 등은 도시안전에 다양한 형태 로 영향(서울시, 2014)
 - 서울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외국인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층의 증가 및 계층 양극화의 심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안전취약인구가 증가 하며, 생활안전의 불안요인도 증가함을 의미
- o 시설 노후화, 인구 구성 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위험 사회 징후의
 - 서울의 도시공간은 인구와 시설의 고밀화와 함께 노후화가 현격히 진행 중임. 50년 이상 노후화된 다수의 시설(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서울시, 2014)이 보여주듯이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증가(2013년 12% → 2050년 37%)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이 약 160만 명(2013년)(서울시, 2014)에 달하는 현실에서 인구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안전취약계층에 주목
- o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구제역(2010년), 에볼라(2014년), 메르스(2015년) 금융사기, 사이버 테러 등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재난이 늘어나고 있음. 에너지(전기, 가스) 시설의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증가가 우려(서울시, 2014)

²⁾ 서울시, 201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 참조

- o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 항공선박·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이 늘고, 등산·해양스포츠· 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이 증가

[표 2-1] 서울의 여건 변화와 도시안전에 대한 시사점

 구분		여건 변화	도시안전에 대한 시사점
도시공간의 취약성		 저지대, 급경사지 개발 증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감소, 불투수율 증가 초고층 건물 등 시설물의 고밀화, 고층화, 대형화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 지하공간 개발 확대 	 · 침수, 사면재해, 폭염 등 자연재해 위험 상존 · 건축물시설물 재난 취약성 증가와 붕괴 등 인적재난 위험 증가 ·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
기후환경 변화		· 온도 상승 · 강우량, 강우강도 증가 · 지구온난화	· 기후변회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폭염, 폭설, 전염병 등 극한 기상이변에 따 른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위험 증가
	인구 변화	노인인구 증가 및 1인가구 증가외국인 거주인구 및 방문객 증가저소득층 증가 및 가계의 소득 양극화 심화	·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복지수요 증가 · 생활안전상의 도시 불안요인 증가
사회경제	시민의식	· 도시사회의 개인화, 익명화, 아노미 (anomy)화 ·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 요구수준 증가 · NGO 등 민간부문 역할 증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도시 불안요인 증가 더 섬세한 시민중심생활중심의 안전수요 증가 도시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증가 시민참여와 자율방재 중요성증가
변화	경제 활동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해외여행 증가 · 경제활동의 네트워크화와 상호의존 성 증대	· 테러, 감염병 등의 발생위험과 시스템 취약성 증가
	기술 발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감지, 예측, 모니터링, 전파 등의 능력 증대 · 초고속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 인구 증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대응능력 향상 가능 · 정보유출,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 러, 정보의 신뢰성무결성 문제로 인 한 사회적 혼란과 도시서비스 마비 위험 증가

2_위험과 안전의 불평등 연구 검토

1) 위험과 안전의 불평등 의미

- ㅇ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상황은 서로 연관
 - 황선재(2015)는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초래" 함을 강조
- o 경제적 약자들은 사회계층적으로 상층에 있는 자들보다 환경, 건강 등의 위험에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많이 노출
 - 위해·혐오·기피시설 등이 정치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김홍균(2012)은 이러한 지역이 오염과 관련하여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음을 지적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음. 신지영(2013)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특정지역,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빈곤의 중요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과 사고에 의한 사망과 관련된 위험이 빈곤 계층에서 특히 높음. 소득불평등 증가는 '지위경쟁'을 초래하여 개인적인 수준에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비만 등과 같은 병리현상이 나타남을 경험적으로 제시한 연구가다수(김도영, 2012; 김진영, 2007; 김형용, 2010; 송인한·이한나, 2011; 이미숙, 2005)



[그림 2-1] 위험의 불평등

- o 위험은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곧 사회적 위험지위를 결정
 - 여러 연구에서 위험에 대한 노출은 계층에 따라서 차등화되었음을 지적함 (김미숙 외, 2013)³⁾.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요소의 불평등한 분배를 보여주며 위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위험지위를 결정하고, 정치적 과정의 중심이 됨 (이재열, 2010). 사회적 위험지위(social risk positions)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의되는 지위
 - 안전은 개인의 정보접근능력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함. 다양한 사회집단이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없는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의 결과로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 공동체가 발생
 - 따라서 안전정책에서 안전의 공평한 재분배와 함께 취약계층과 집단에 대한 배려가 중요(시상영, 2015)

2) 안전에 취약한 취약계층

- o 취약계층은 경제적·사회적·인구학적 조건의 취약성에 따라 위험에 불평등하게 노출
 - 취약계층은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없으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사회참여 기회가 배제되는 취약성이 있는 계층을 의미함. 법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기본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간주
 - 새로운 위험환경의 등장에도 취약계층은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 제약으로 인해 위험대응능력이 부족함. 이는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및 준비가 미흡한 데서 기인함. 위험상황으로 인해 계층하락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
- o 안전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 재해약자 등이 안전복지의 관점에서 강조
 -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가 사회복지국가의 차원에서 중요

³⁾ 김미숙·이상영·정진욱·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안전사각지대 발생과 관리

- ㅇ 안전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 강조
 -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사각지대' 용어는 "개인 혹은 정책 당국의 안전을 위한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의미함. 정지범(2015) 은 안전사각지대의 다차원성을 지적함.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들의 부주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인적 오류'를 의미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법규 및 규제의 부재로 인한 '제도의 사각지대'와 제도는 있지만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구부
 -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안전관리보다 안전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적으로 관리(anticipatory management)하려는 노력이 중요(정지범, 2015)
- o 취약계층과 지역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악순환 발생
 - 사회취약계층은 지역적·물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함. 거주 지역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서로 연계되면서 크고 작은 위험요소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

4) 안전복지 개념의 등장

- o 안전(Safety)과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연관성이 중요
 - 취약계층은 사고에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대한 경제적 대응과 회복능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계층하락을 야기함. 이에 따른 '안전복지'의 개념이 등장
 - '안전복지'는 생활환경에 잠재되어 있거나 내재적인 위험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를 의미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를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사고 후 치유와 자활 지원 등 안전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적 복지를 의미

- o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조
 - 안전관리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회안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 지역안전공동 체란 특정 범위 지역에서 안전을 매개로 공동의 유대감을 지니고 사회적 상 호작용을 하는 공동체를 의미함.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 역주민과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⁴⁾ 강조(원소연, 2014)

The Seoul Institute

⁴⁾ 거버넌스를 상호신뢰에 입각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관계라고 본다면, 거버넌스는 지역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03

위험과 안전 인식의 사회계층적 특성

- 1_서울 시민의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
- 2_위험 관련 정보의 영향
- 3_시민의 안전의식 수준

03 위험과 안전 인식의 사회계층적 특성

- 위험에 대한 접근에서 객관적 위험과 위험의 주관적 인식 모두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
 - 위험은 객관적인 가능성으로 있지만,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식과 지식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됨. 이재열(2005)에 따르면 위험은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인지되고, 증폭되거나 간과됨을 지적함5). 위험에 대한 지각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불안의 내용도 일상의 삶을 통해 재구성
- o 위험과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검토
 - 조권중(2014)과 신상영(2017) 연구의 시민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재분석함.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하여 항목별 점수를비교 분석하고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수준, 주택유형, 권역별 분류에 따른 계층적 특성을 검토
 - 조사된 데이터들이 시간 간격을 둔 것으로 인식의 차이와 변화에 대한 추정이 가능함. 단, 설문 문항과 척도 구성이 달라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의미
- '서울 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조사'는 위험요소를 7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위험사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불안, 태도를 조사
 - 조권중(2014)의 '서울 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조사'가는 서울 시민을 대 상으로 위험사회론의 시각에서 제기된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 불만 및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사회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⁵⁾ 이재열 외,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5}점 척도 100점 화산법 = (n - 1)/(5 - 1) x 100: 0~100까지 점수 분포

⁷⁾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에서 다루었던 데이터를 이연구의 과제에 따라 재분석하여 제시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 2014년 8월 30일에서 2014년 9월 22일까지 서울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 패널조사를 병행하여 조사

- 조권중(2014) 연구의 7가지 위험요소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환경 관련 위험임. 이 연구는 도시 사회 전반의 위험을 비중 있게 검토

[표 3-1] 위험의 유형별 분류

구분	위험 내용
자연재해 관련 위험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등
건강 관련 위험	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등
생애주기 관련 위험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생활 관련 위험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괴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위험 등
경제생활 관련 위험	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등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
환경 관련 위험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

자료: 조권중, 2014

- o '서울의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는 재난과 사고를 11개 차원으로 유형 화하여 시민의 인식을 조사
 - 신상영 외(2017)가 최근 실시한 '서울의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 사'⁸⁾는 서울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에 대한 시민의 '위험도' 인식 수준과

⁸⁾ 신상영 외, 2017, 「안전서울 미래비전 및 정책의제 설정(시민안전보고서)」, 서울연구원; 당시 조사에서는 위험도와 함께 중요도를 같이 조사하였으나 여기서는 인식도를 중심으로 분석

서울시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조사임.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사

- 56개의 재난·사고를 11개 차원으로 유형화함. 11개 차원은 기상 관련, 지질 관련, 화재·폭발·붕괴 등 관련, 교통사고 관련, 오염사고 관련, 보건 관련, 동식물 관련, 생활안전사고 관련, 생활·강력범죄 관련, 안보 및 사회불안 관련, 도시서비스 관련으로 분류

[표 3-2] 재난사고의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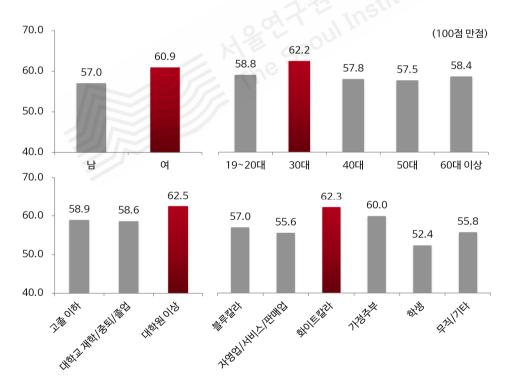
 구분	재난 내용
기상 관련	홍수침수, 산사태·토사재해, 태풍·강풍, 낙뢰(벼락), 우박, 황사, 가뭄, 폭염, 폭설, 한파
지질 관련	지진, 화산폭발
화재·폭발·붕괴 등 관련	화재, 산불, 폭발, 위험물사고, 붕괴(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지반함몰(땅꺼짐)
교통사고 관련	도로교통 사고, 철도·지하철 사고,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오염사고 관련	수질오염사고, 대기오염사고(미세먼지 포함), 토양오염사고, 방사능 사고
보건 관련	감염병 확산, 식중독 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동식물 관련	가축전염병 확산, 식물유행병 확산,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조류 확산
생활안전사고 관련	압사사고, 추락사고, 자전거사고, 레자놀아시설 사고, 등산사고, 수난사고 (물놀이 익수익사), 승강기 사고, 감전사고 등
생활·강력범죄 관련	강도.살인,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폭력, 절도, 방화 등 기타 생활범죄
안보 및 사회불안 관련	테러, 폭동 및 소요
도시서비스 관련	물 공급 중단, 에너지 공급 마비,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대중교통 마비, 유통체계 마비, 통신 및 정보서비스 마비, 사이버 피해 등

자료: 신상영 외, 2017

1 서울 시민의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

1) 서울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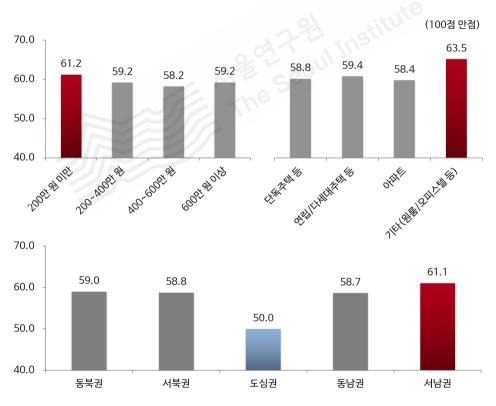
- ㅇ 조권중(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서울은 위험한 편이라고 인식
 - 2014년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의 위험도가 100점 만점에 59.0점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평가함. 우리나라 전반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63.2점으로 나 타난 것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서울을 안전하다기보다는 약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
- ㅇ 서울의 위험도에 대한 이식은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차이
 - 서울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에서는 30대가 특히 높음.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종사자가, 그리고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집단이 서울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 큰 편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1] 서울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_성별·연령·교육수준·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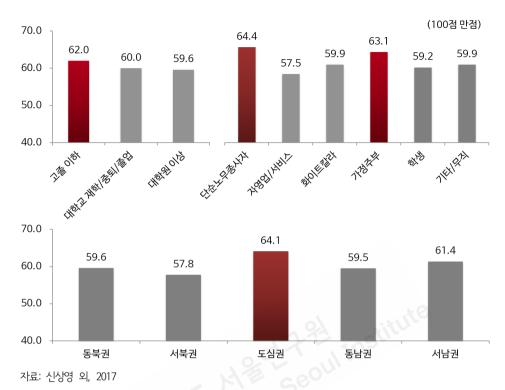
-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서울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보다 서울의 안전에 대해 더부정적으로 인식함. 지역적으로는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권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비교적 서울을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서남권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인식
- ㅇ 정보에 민감한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의 위험도 인식이 높음
 - 30대 중심의 젊은 층,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나 화이트칼라 직업군들이 서울을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여성, 저소득가구,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 등 위험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집단들이 서울을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2] 서울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_가구소득-주택유형·권역별

- 2017년 조사한 서울의 재난과 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에서도 시민은 서울이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인식
 - 신상영 외(2017) 연구에서의 '위험도'는 서울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빈도와 발생 시 피해정도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각되는 위험의 정도를 의미함. 서울의 재난·사고의 위험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위험하다고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17.5%의 3배 정도의 비율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2점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4년도 조사 결과의 59.0점과 큰 차이가 없는 편
- ㅇ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위험, 고소득 가구는 가장 덜 위험하다고 인식
 -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전반적 위험도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교육수 준으로는 고졸 이하(62.0점)가, 직업별 특성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64.4점) 가 위험도를 높게 인식함. 또한, 가정주부도 63.1점으로 상대적으로 위험하 다고 인식함. 가구소득별로는 600만 원 미만이 주로 60~61점인 데 비해 600만 원 이상은 57.4점으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인식
 - 2014년도 조사 결과와 달리 고졸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나 단순노무 종사자, 가정주부와 같은 집단이 재난과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도 조사가 사회 전반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2017년도 조사는 재난과 사고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과 사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취약성이 드러난 계층들의 위험도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o 도심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을 가장 위험하게 인식
 - 권역별로 도심권(64.1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다음이 서 남권(61.4점), 동북권(59.6점), 동남권(59.5점), 서북권(57.8점) 순
 - 2014년도 조사 결과에서 도심권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한 것과 상반적으로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함. 재난 과 사고의 위험도에서는 그러한 위험들에 실제 더 노출되는 집단들이 상대 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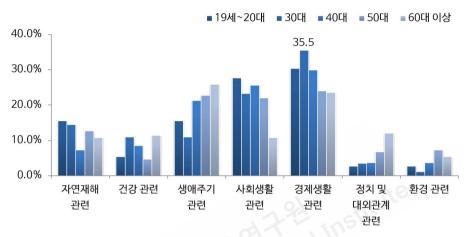


[그림 3-3] 서울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_교육수준 직업・권역별

2) 위험과 재난 유형별 인식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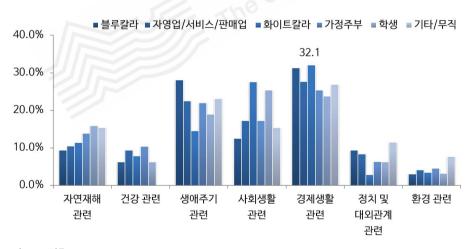
- ㅇ 서울 시민은 서울에 대해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
 - 2014년 조사에서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위험으로 경제생활 관련 위험(28.8%)을 선택함. 그다음은 사회생활 관련 위험(21.8%), 생애주기 관련 위험(19.3%), 자연재해 관련 위험(12.1%), 건강 관련 위험(8.4%),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5.8%), 환경 관련 위험(4.0%) 순
- ㅇ 30대와 화이트칼라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특히 취약하다고 인식
 -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은 30대 (35.5%)에서 가장 높음. 사회생활 관련 위험 응답은 20대(27.7%), 생애주 기 관련 위험 응답은 60대 이상(25.9%)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

- 직업별로 살펴보면,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직업군은 화이트칼라(33.1%)와 블루칼라(31.3%)임. 경제생활 관련 위험 외에 블루칼라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28.1%)이, 화이트칼라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27.6%)이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4]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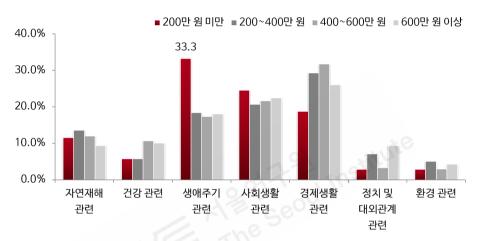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5] 서울이 기장 취약한 위험_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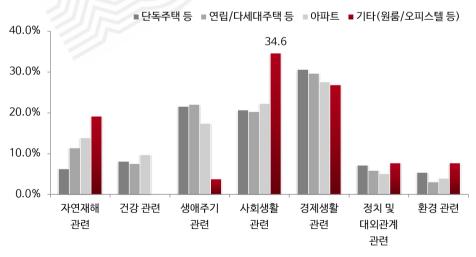
o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원룸·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 유형 거주자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특히 취약하다고 인식

- 가구소득 수준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 오히려 생애주기 관련 위험(33.3%)과 사회생활 관련 위험(24.6%)이 더 취약하다고 인식
- 거주하는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 자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이 34.6%로 나타났 으며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특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6]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_가구소득별



[그림 3-7] 서울이 가장 취약한 위험 주택유형별

- ㅇ 특히 도심권과 강남지역 시민들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
 -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을 비롯하여 강남 지역인 동남권과 서남권은 경제 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함. 반면 동북권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23.5%로 동일하게 높았으며, 서북권은 24.5% 가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

[표 3-3] 위험요소 중 서울의 취약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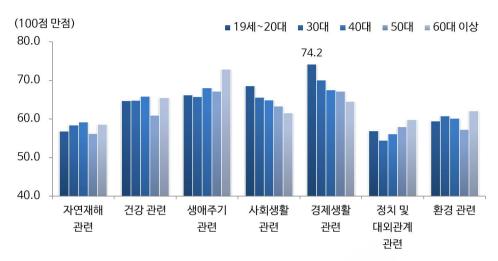
	구분	자연 재해 관련	건강 관련	생애 주기 관련	사회 생활 관련	경제 생활 관련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환경 관련	계
	전체	12,1	8.4	19,3	21,8	28,8	5.8	4.0	100.0
	19세~20대	15,5	5.4	15.5	27.7	30.4	2.7	2.7	100.0
0.1	30⊏∦	14.5	11.0	11.0	23.3	35.5	3.5	1.2	100.0
연 럥	40⊏∦	7.3	8.5	21.3	25.6	29.9	3.7	3.7	100.0
<u>'</u>	50⊏∦	12,7	4.7	22.7	22.0	24.0	6.7	7.3	100.0
	60대 이상	10.8	11.4	25.9	10.8	23.5	12.0	5.4	100.0
	블루칼라(단순노무/ 생산/단순기술직 등)	9.4	6.3	28.1	12.5	31.3	9.4	3,1	100.0
	자영업/서비스/판매업	10,5	9.4	22.5	17.3	27.7	8.4	4.2	100.0
직 업	화이트칼라(전문직/ 관리직/사무직 등)	11.4	7.9	14.6	27.6	32,1	2.9	3.5	100.0
ū	가정주부	13,9	10.4	22.0	17.3	25.4	6.4	4.6	100.0
	행성	15.9	6.3	19.0	25.4	23.8	6.3	3.2	100.0
	기타/무직	15.4	0.0	23.1	15.4	26.9	11.5	7.7	100.0
 가	200만 원 미만	11.6	5.8	33,3	24.6	18.8	2.9	2.9	100.0
· 구	200~400만 원 미만	13,6	5.8	18.4	20.7	29.3	7.1	5.1	100.0
소	400~600만 원 미만	12.0	10.7	17.4	21.7	31,8	3,3	3.0	100.0
득	600만 원 이상	9.4	10,1	18.1	22.5	26.1	9.4	4.3	100.0
주	단독주택 등	6.3	8.1	21.6	20.7	30.6	7.2	5.4	100.0
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11.4	7.6	22.1	20.3	29.7	5.9	3.1	100.0
유	아파트	13,9	9.7	17.4	22,3	27.6	5.1	4.0	100.0
형	기타(원룸/오피스텔 등)	19.2	0.0	3.8	34.6	26.9	7.7	7.7	100.0

[표 3-3 계속] 위험요소 중 서울의 취약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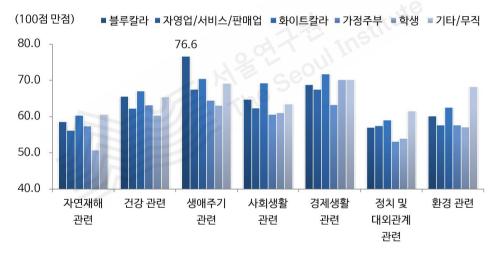
	구분	자연 재해 관련	건강 관련	생애 주기 관련	사회 생활 관련	경제 생활 관련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환경 관련	계
	전체	12.1	8.4	19.3	21.8	28.8	5.8	4.0	100.0
	동북권	14.7	10.5	23.5	21.4	23.5	2.5	3.8	100.0
71	서북권	24.5	11.7	20.2	20.2	13,8	7.4	2.1	100.0
권 역	도심권	10.0	4.0	22.0	22.0	30.0	6.0	6.0	100.0
ŞT	동남권	8.2	6.5	16.5	20.6	32.9	9.4	5.9	100.0
	서남권	8.1	7.3	16.1	23.4	36,3	5.6	3.2	100.0

- o 실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과 생애주기 관련 위험
 - 2014년 설문조사에서 7가지 위험요소의 각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68.6점), 생애주기 관련 위 험(68.1점)이 본인에게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 그다음은 사회 생활 관련 위험(64.8점), 건강 관련 위험(64.4점), 환경 관련 위험(60.0점), 자연재해 관련 위험(57.9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57.0점) 순
- ㅇ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 특히 20대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을 100점 만점에 74.2점으로 매우 높게 인식함. 반면 60대 이상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72.9점)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
- o 블루칼라 직업군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실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
 - 직업별로 살펴보면, 블루칼라 직업군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76.6점)의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특성을 보임. 두드 러진 차이는 없으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직업군은 화이트칼라 직업군(71.8점)



자료: 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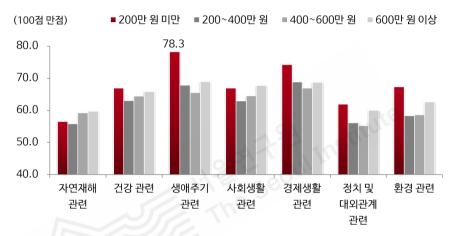
[그림 3-8]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 연령별



[그림 3-9]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_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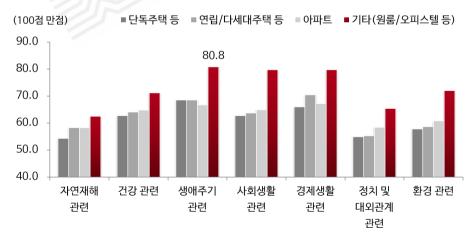
- ㅇ 저소득 집단은 위험 전반에 대한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이 특히 생애주기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78.3점)을 민감하게 인식함. 이 집단은 다른 소득 집단보다 경 제생활 관련 위험(74.3점), 환경 관련 위험(67.4점), 건강 관련 위험(67.0점) 의 발생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

- o 기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모든 위험에 대해 본인에게 실제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고 인식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80.8점), 사회생활 관련 위험(79.8점), 경제생활 관련 위험(79.8점) 모두 본인에게 실 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함. 이들은 그 외 환경 관련 위험 (72.1점)이나 건강 관련 위험(71.2점)의 실제 발생 가능성도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비교적 높게 인식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10]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_가구소득별



[그림 3-11]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_주택유형별

[표 3-4] 위험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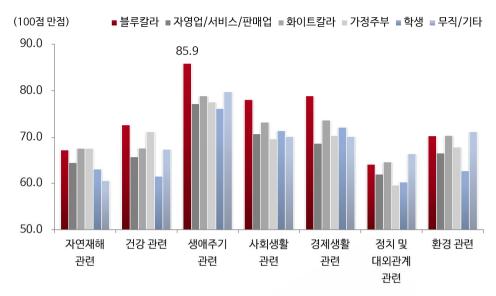
(단위: 100점 만점)

	구분	자연 재해 관련	건강 관련	생애 주기 관련	사회 생활 관련	경제 생활 관련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환경 관련
	전체	57.9	64.4	68.1	64.8	68.6	57.0	60.0
성	남자	57.2	64.1	69.1	64.8	69.7	58.1	60,6
별	여자	58.5	64.8	67.1	64.8	67.6	56.0	59.5
	19세~20대	56.8	64.7	66.2	68,6	74.2	56.9	59.5
	30⊏∦	58.4	64.8	65.8	65,6	70.1	54.5	60.8
연 령	40⊏∦	59.2	65.9	68.1	64.9	67.5	56.1	60.2
0	50⊏∦	56.2	61.0	67.2	63,3	67.2	58.0	57.3
	60대 이상	58.6	65.5	72.9	61.6	64.6	59.8	62,1
	블루칼라	58.6	65.6	76.6	64.8	68.8	57.0	60,2
	자영업/서비스/판매업	56.2	62.3	67.5	62.4	67.5	57.5	57.7
직	화이트칼라	60.3	67.1	70.5	69.3	71.8	59.1	62,6
업	가정주부	57.4	63.2	64.5	60,6	63,3	53.2	57.7
	학생	50.8	60.3	63,1	61,1	70.2	54.0	57.1
	기타/무직	60.6	65.4	69.2	63,5	70.2	61.5	68,3
가	200만 원 미만	56.5	67.0	78.3	67.0	74.3	62.0	67.4
구	200~400만 원 미만	55.9	63,1	67.9	63,0	68.9	56.2	58,4
소	400~600만 원 미만	59.3	64.5	65.6	64,6	67.0	55.3	58,7
득	600만 원 이상	59.8	65.9	69.0	67.8	68.8	60.1	62.7
	단독주택 등	54.3	62.8	68.5	62,8	66.0	55.0	57.9
주 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58.3	64.1	68.6	63,8	70.5	55.3	58.7
유	크屽ㅇ	58.3	64.8	66.7	65.0	67.2	58.5	60.9
형	기타(원룸/오피스텔 등)	62.5	71.2	80.8	79.8	79.8	65.4	72.1

자료: 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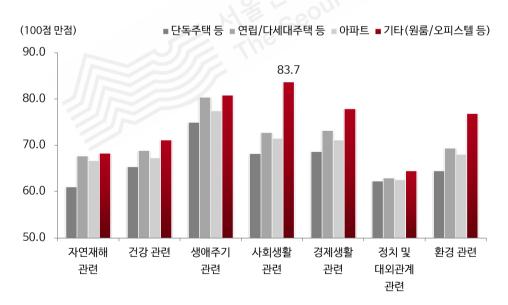
주: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o 향후 서울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인식
 - 2014년 조사 결과 위험요소별 향후 증감 전망에 대해 시민들은 서울에서 대부분의 위험요소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함. 특히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78.3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어 사회생활 관련 위험(71.9점)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71.8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 그다음은 환경 관련 위험(68.3점), 건강 관련 위험(67.7점), 자연재해 관련 위험(66.3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62.7점) 순
 - 향후 전망에 대해 시민들은 자연재해나 정치·대외관계 등 다소 추상적인 요소보다 실업, 빈곤 등의 경제생활이나 노후 등 생계문제를 더 민감하게 인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위험(60.0점)의 향후 증가는 서울의 취약성이나 실제 발생 가능성보다 높아, 미래 위험 전망에서 환경 문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
- o 블루칼라 직업군은 특히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인식
 - 서울에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인식은 단순노무, 단순기술직 등의 블루칼라 직업군(85.9점)이 가장 높음. 블루칼라 직업군은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향후 증가도도 다른 계층보 다 높음. 이들은 향후 위험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인식
- o 기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인식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는 다른 계층과 달리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83.7점으로 가장 높음. 이들은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사생 활침해, 폭력범죄, 인적 재난 등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고, 위험 전반에 대해서도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는 점수가 높은 경향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12] 위험분야별 향후 증감 전망_직업별



[그림 3-13] 위험분야별 향후 증감 전망_주택유형별

[표 3-5] 위험요소별 향후 증감 여부 전망

(단위: 100점 만점)

	구분	자연 재해 관련	건강 관련	생애 주기 관련	사회 생활 관련	경제 생활 관련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환경 관련
	전체	66.3	67.7	78.3	71.9	71.8	62,7	68.3
	블루칼라	67.2	72.7	85.9	78.1	78.9	64.1	70,3
	자영업/서비스/판매업	64.5	65.7	77.2	70.8	68.7	62.0	66,5
직	화이트칼라	67.6	67.7	78.9	73.3	73.7	64.6	70,4
업	가정주부	67.6	71.2	77.6	69.7	70.4	59.8	67.9
	학생	63,1	61.5	76.2	71.4	72.2	60.3	62,7
	기타/무직	60.6	67.3	79.8	70.2	70.2	66.4	71,2
	단독주택 등	61.0	65,3	75.0	68.2	68.7	62,2	64,4
주 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67.7	68.9	80.4	72.8	73.2	62.9	69,4
유	아파트	66.6	67.2	77.5	71.5	71.2	62.5	68,1
형	기타(원룸/오피스텔 등)	68,3	71.2	80.8	83.7	77.9	64.4	76.9

자료: 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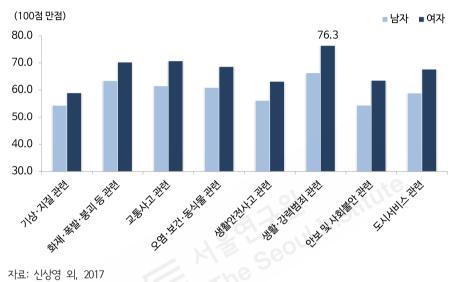
주: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서울에서 가장 취약한 위험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으로, 본인에게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역시 경제생활 관련 위험임. 그리고 향후 가장 크게 증가할위험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
 - 2014년 설문조사 결과에서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나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두드러짐.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택유형 등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매우 취약한 위험의 유형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
- o 2014년 조사가 사회 전반의 포괄적인 위험들을 묻는 조사였다면, 2017년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인 도시의 재난과 사고를 물어보는 조사
- ㅇ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재난·사고 중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신상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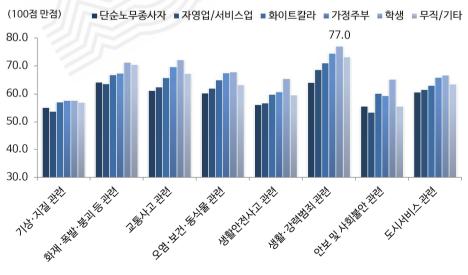
-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71.5점으로 각종 재난·사고의 전체 평균 (63.0점)보다 약 8.5점 높음. 그다음은 화재·폭발·붕괴 관련(66.9점), 교통사고 관련(66.2점), 오염·보건·동식물 관련(64.9점), 도시서비스 관련(63.4점), 생활안전사고 관련(59.8점), 안보 및 사회불안 관련(59.1점), 기상·지질 관련 (56.8점) 슈
- 상대적으로 안보나 기상·지질 관련 위험도는 낮게 인식됨. 각 항목의 세부유 형에서는 오염사고 관련 대기오염사고(미세먼지 포함)가 76.2점으로 가장 높 은 반면, 지질 관련 화산폭발은 42.4점으로 가장 낮은 편
- ㅇ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재난・사고에 대해 더 위험하다고 인식
 - 성별 특성에 따른 위험도 인식을 살펴보면, 여성은 특히 생활·강력범죄 관련 위험(76.3점)을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남성(66.4점)보다 위험도 인식이 매 우 높음. 화재·폭발·붕괴 등 관련 위험이나 교통사고 관련 위험에서도 여성 의 위험도 점수가 70점을 웃돎. 여성은 남성보다 모든 재난·사고의 발생빈 도와 피해 정도에 민감
- o 학생과 가정주부, 20~30대 젊은 집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모든 차원의 재난· 사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 직업별로는 학생과 가정주부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생활·강력범 죄 관련 위험에서 학생은 77.0점, 가정주부는 74.5점으로 나타남. 단순노무 종사자나 자영업·서비스업 종사자는 대부분의 재난·사고 차원에서 위험도 인 식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순노무종사자는 화재·폭발·붕괴 등 관련 위험도 인 식이 매우 높음.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다른 소득수준 집단보다 재 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가장 낮은 편
 - 연령대별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30대가 대부분의 재난·사고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ㅇ 대부분의 재난 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은 서남권이 가장 높은 편
 -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남, 생활·강력범죄 관련 위험도 인식은 서남권이 73.6점으로 가장 높으며, 도심권(65.9점)이 특히 낮은 편



자료: 신상영 외, 2017

[그림 3-14] 재난사고 차원별 위험도 인식_성별



자료: 신상영 외, 2017

[그림 3-15] 재난사고 차원별 위험도 인식_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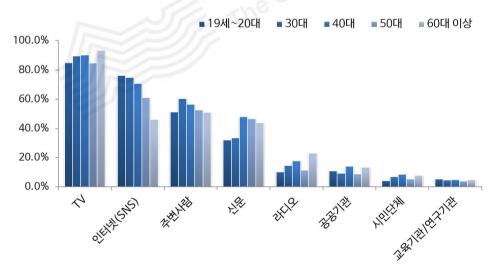
[표 3-6] 재난사고의 계층별 주요 특성

	구분	기상·지 질 관련	화재·폭 발·붕괴 등 관련	교 통 사고 관련	오염·보 건·동식 물 관련	생활안전 사고 관련	생활·강 력범죄 관련	안보 및 사회불안 관련	도시 서비스 관련
	전체	56.8	66.9	66,2	64.9	59.8	71.5	59.1	63,4
성	남자	54.4	63.4	61.5	60.9	56.2	66.4	54.5	58.9
별	여자	59.0	70.3	70.7	68.7	63.1	76.3	63.5	67.7
	19세~20대	57.2	67.9	67.8	65.7	61.5	73.5	64.3	64.9
	30⊏∦	59.1	68.1	67.9	65.5	61.5	71.7	60.7	64.1
연 럥	40⊏∦	57.5	67.3	64.9	64.2	59.2	70.8	56.3	61.5
O,	50⊏∦	55.0	65.4	65.5	63,5	57.6	70.3	57.0	63,1
	60대 이상	55.2	66.0	65.5	65.4	59.3	71.4	58.0	63.7
	<u>단순노무종</u> 사자	55.2	64.2	61.3	60,3	56.2	64.1	55.6	60,6
	자영업/ 서비스업	53.8	63.7	62.4	62.0	56.7	68.7	53.4	61.6
직	화이트칼라	57.1	66.8	65.8	65,0	59.8	71,1	60.2	63.0
업	가정주부	57.7	67.4	69.7	67.5	60.8	74.5	59.4	65.9
	학생	57.7	71.3	72.2	67.8	65.5	77.0	65.2	66.7
	무직/기타	57.0	70.5	67.3	63,2	59.6	73,3	55.6	63.5
학	고졸 이하	59.3	68.8	67.2	66,1	61.1	73.7	60.7	67.1
억 력	대졸 이하	56.4	66.7	66.7	65.0	59.6	71.6	58.9	63.0
	대학원 이상	56.4	66.5	63.4	63,3	59.4	69.4	58.7	62.4
월	200만 원 미만	54.7	64.2	62.6	59.1	56.7	67.0	51.7	60.3
펼평균	200~400만 원 미만	59.1	68.5	68.7	67.4	62.1	73.2	61.3	65.3
판 소 믁	400~600만 원 미만	56.4	66.5	65.0	64.0	59.4	70.5	58.7	63,2
Г	600만 원 이상	54.9	66.4	65.8	64.9	58.3	72.0	59.3	62.4
	동북권	57.6	66.8	67.1	65.7	59.4	72,3	59.3	62.9
٦,	서북권	53.4	64.4	63.1	61.4	57.8	67.0	57.0	60.5
권 여	도심권	57.1	65.2	66.8	62,3	57.3	65.9	58.9	60.4
면 역 -	동남권	55.3	66.4	64.8	64.3	59.3	71.1	57.5	64.3
	서남권	58.2	68.6	67.5	66.3	61.7	73.6	60.9	65.0

자료: 신상영 외, 2017

2_위험 관련 정보의 영향

- 1)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
 - o 위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는 주로 TV와 인터넷을 이용해 획득
 -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얻는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TV를 통해서(8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인터넷이나 SNS(65.9%), 주변사람(54.6%), 신문(40.9%) 순임. 그 외 공공기관(11.3%)이나 시민단체(6.6%) 등은 매우 저조(조권중, 2014)
 - o 20~30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60대 이상은 주로 TV를 통해 정보 획득
 - 연령별로 살펴보면 TV를 통해서라는 응답은 60대 이상(93.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20대 (76.4%)와 30대(75.0%)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주변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60.7%)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준



[그림 3-16] 위험 관련 정보획득 경로_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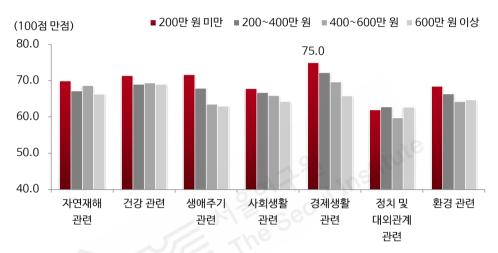
[표 3-7] 위험 관련 정보획득 경로(복수응답)

(단위: %)

구분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SNS)	주변 사람 (가족/ 친구/ 친지/ 이웃/ 동료)	공공 기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교육 기관/ 연구 기관	책 (각종 저널지 등)
	전체	88.8	40.9	15.5	65.9	54.6	11.3	6.6	4.8	0.4
서버	남자	89.2	49.5	17.0	68.3	48.2	13,7	7.5	5.4	0,3
성별	여자	88.3	32.8	14,1	63.6	60.7	9.0	5.8	4.1	0,5
	19세~20대	85.1	31.8	10,1	76.4	51.4	10.8	4.1	5.4	0.0
	30⊏∦	89.5	33.7	14.5	75.0	60.5	9.3	7.0	4.7	0.6
연령	40 ⊏H	90.2	48.2	17.7	70.7	56.7	14.0	8.5	4.9	0.0
	50⊏∦	84.7	46.7	11,3	61.3	52.7	8.7	5.3	4.0	0.7
	60대 이상	93.4	44.0	22.9	46.4	51,2	13,3	7.8	4.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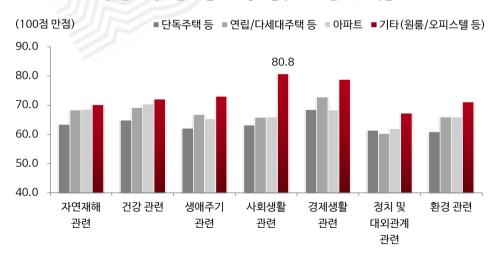
- ㅇ 시민들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를 접했을 때 두려움이 가장 큰 편
 -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매체에서 7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기사를 보거나 정보를 얻었을 때 시민들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70.4점)이 가장 큼(조권중, 2014). 그다음은 건강 관련위험(69.3점), 자연재해 관련 위험(67.8점), 사회생활 관련 위험(66.1%), 생애주기 관련 위험(65.7%), 환경 관련 위험(65.5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위험(61.6%) 순
 - 7가지 위험요소 모두가 50점을 웃도는 점수를 보여, 시민들은 위험 관련 매체 정보 접촉 시 전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건강 관련 위험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나 향후 전망에서의 낮은 인식과 달리 매체정보를 통해 느끼는 두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성
- 위험과 관련한 매체의 정보로 인한 두려움은 저소득 가구와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가 매우 큰 편

- 위험 관련 매체 정보로 인한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더 큼.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은 20~40대의 젊은 연령 집단,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75.0점) 가 매우 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78.9점)도 크지만, 사회생활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80.8점)이 더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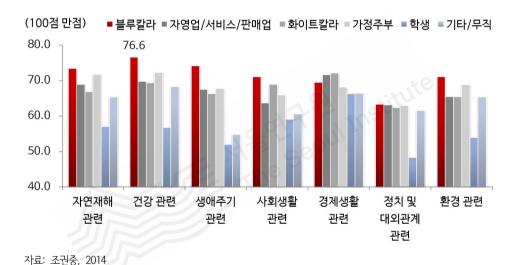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17]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_가구소득별



[그림 3-18]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_주택유형별

- ㅇ 블루칼라 직업군은 건강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편
 - 직업별로 살펴보면, 블루칼라 직업군은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큼.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69.5점)은 비교적 적은 가운데, 건강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76.6점)이 특히 큰 특성
 - 지역별로는 서북권에 사는 시민들이 7가지 위험요소의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이에 비해 도심권에 사는 시민들은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그림 3-19]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_직업별

- 여성, 젊은 연령층,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블루칼라 직업군, 저소득 가구,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관련 매체 정보 접촉 시 두 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큰 편
 - 저소득 가구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에,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 블루칼라 직업군은 건강 관련 위험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함. 이는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사회적 또는 환경적으로 취약한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때 더 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

[표 3-8] 위험요소별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 인식 정도

(단위: 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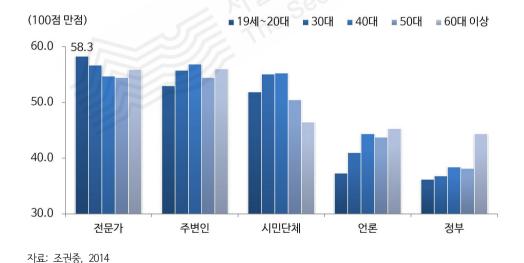
	구분	자연 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 주기 관련 위험	사회 생활 관련 위험	경제 생활 관련 위험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	환경 관련 위험
	전체	67.8	69.3	65.7	66.1	70.4	61.6	65.5
 성별	남자	65.0	67.3	64.1	64.4	70.2	60.2	64.0
	여자	70.5	71.2	67.2	67.6	70.6	62.8	66.9
	19서~20대	66.7	66.4	61.7	67.4	72.1	56.9	61.5
	30⊏∦	67.6	70.4	65.8	66.6	73.6	62.2	65.8
연령	40⊏∦	68.6	70.9	68.3	66.6	71.8	61.3	66.6
	50⊏∦	67.0	68.8	66.3	65.2	68.2	61.8	66.8
	60대 이상	69.1	69.9	66.1	64.6	66.1	65.1	66.4
70	고졸 이하	71.9	72.8	68.9	65.9	70.3	61.6	66.3
교 육 정도	대학교 재학/중퇴/ <u>종</u> 업	66.6	68.2	64.4	66.4	70.9	61.4	65.1
0-	대학원 이상	62.9	66.0	64.2	63.8	66.4	63.4	66.0
	블루칼라	73.4	76.6	74.2	71.1	69.5	63,3	71.1
	자영업/서비스/판매업	68.9	69.8	67.5	63.7	71.6	63.1	65.5
직업	화이트칼라	66.9	69.4	66.3	68.9	72.1	62.4	65.5
식답	가정주부	71.7	72.3	67.8	65.9	68.2	62.9	68.8
	학생	57.1	56.8	52.0	59.1	66.3	48.4	54.0
	기타/무직	65.4	68.3	54.8	60.6	66.4	61.5	65.4
	200만 원 미만	69.9	71.4	71.7	67.8	75.0	62.0	68.5
가구	200~400만 원 미만	67.2	69.0	67.9	66.7	72.2	62.8	66.4
소득	400~600만 원 미만	68.7	69.4	63.5	65.9	69.7	59.8	64.3
	600만 원 이상	66.3	69.0	63.0	64.3	65.8	62.7	64.7
	단독주택 등	63.5	64.9	62,2	63.3	68.5	61.5	61.0
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68.4	69.3	66.8	65.9	72.9	60.3	66.0
유형	크색	68.6	70.5	65.4	66.0	68.4	62.1	66.0
	기타(원룸/오피스텔 등)	70.2	72.1	73.1	80.8	78.9	67.3	71.2
	동북권	69.9	71.4	69.5	67.7	70.8	60.1	64.6
	서북권	72.6	73.7	70.7	67.6	74.2	68.9	72.9
권역	도심권	61.0	63.0	58.5	61.5	61.0	56.0	61.5
	동남권	66.6	70.3	63.1	63.8	70.6	65.9	70.2
	서남권	66.3	66.3	63,4	66.4	70.3	58.4	61.2

자료: 조권중, 2014

주: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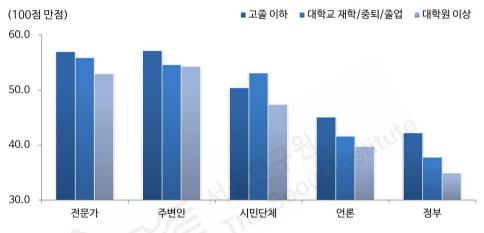
2) 안전 관련 정보의 신뢰도 평가

- o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주변인,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고, 정부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경향
 -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혹은 전문기 관들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전문가(56.0점), 주변인(55.3점), 시민단체(51.9점)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라는 평가가 우세함. 반면 정부나 언론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특히 정부는 38.8점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까운 편(조권중, 2014)
- o 나이가 어릴수록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 정부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는 낮은 경향
 - 전문가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20대(58.3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부나 언론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44.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그림 3-20]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_연령별

- ㅇ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경향
 - 전문가, 주변인,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비교적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
 - 지역적으로는 도심권이 전문가, 정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남권은 그 신뢰도가 낮음. 서북권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특히 높은 편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3-21]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_교육수준별



[그림 3-22]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_권역별

[표 3-9]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

(단위: 100점 만점)

	구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언론	주변인
	전체	56.0	51.9	38,8	42,4	55.3
성별	남자	54.7	50.1	38.5	43.2	54.6
,9, <u>5</u>	여자	57.2	53,6	39.1	41.8	56.0
	19서~20대	58.3	51.9	36,2	37.3	53.0
	30⊏∦	56.7	55.1	36.8	41.0	55.8
연령	40⊏∦	54.7	55,3	38.4	44.4	56.9
	50⊏H	54.5	50.5	38.2	43.8	54.5
	60대 이상	55.9	46.5	44.4	45.3	56.0
7.0	고졸 이하	57.0	50.4	42.2	45.1	57.2
교 육 정도	대학교 재학/중퇴/졸업	55.9	53,1	37.8	41.6	54.6
<u></u>	대학원 이상	53.0	47.4	34.9	39.7	54.3
	블루칼라	57.8	54.7	40.6	46.9	51.6
	자영업/서비스/판매업	54.3	50.3	39.3	45.3	56.3
직업	화이트칼라	55.6	55.1	36.5	39.8	55.2
구입	가정주부	56.4	49.1	41.6	44.4	56.7
	학생	63.1	48.8	40.9	41.7	52.8
	기타/무직	51.9	48,1	38.5	37.5	51.0
	200만 원 미만	51.8	53,3	34.8	40.2	51.1
가구	200~400만 원 미만	56.7	51.8	38.5	42.6	55.2
소득	400~600만 원 미만	57.2	51.6	41.0	43.4	56.4
	600만 원 이상	54.0	52.2	37.0	41.1	55.3
	단독주택 등	57.9	49.8	41.9	44.1	56.8
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56.3	53,0	37.9	42.8	55.3
유형	크掘ㅇ	55.2	50.9	39.6	42.4	55.0
	기타(원룸/오피스텔 등)	55.8	63,5	25.0	31.7	52.9
	동북권	54.6	48.4	39.2	43.5	55.2
	서북권	57.2	59.3	36.2	40.4	57.2
권역	도심권	62.0	47.0	42.5	48.0	52.0
	동남권	50.9	47.8	37.7	38.1	54.3
	서남권	59.2	56.3	39.6	44.1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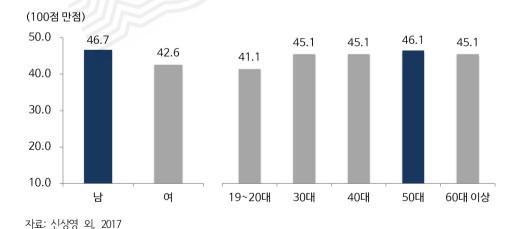
자료: 조권중, 2014

주: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3_시민의 안전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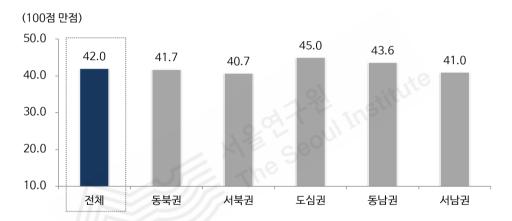
1) 서울의 안전의식 평가

- ㅇ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만족도는 44.6점으로 낮은 수준
 -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에 만 족한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18.2%에 불과함. 전체 응답자의 32.7%는 불만 족스럽다고 인식(신상영 외, 2017)
-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해 남자, 50대, 600만 원 이상의 고소
 두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신상영 외, 2017)
 - 성별로는 남자가 46.7점으로 여자(42.6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50~59세)가 46.1점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41.1점으로 낮음. 소득별로 만족도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편이나,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
 -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46.8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서북권(46.6점)과 동 북권(45.2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동남권(43.8점)과 서남권(43.3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편



[그림 3-23]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만족도_성별.연령별

- o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역량은 미흡
 - 2017년 조사 결과, 재난·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역량은 42.0점으로 낮게 평가됨. 특히 안전의식 및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4.1%였는데, 이는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41.0%)의 1/3 수준에 불과(신상영 외, 2017)
 -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역량에 대한 평가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5.0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동남권(43.6점), 동북권(4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력별·소득별로는 평가가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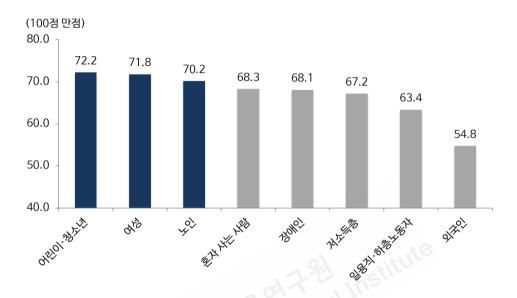
자료: 신상영 외, 2017

[그림 3-24]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역량에 대한 평가_권역별

2)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

- ㅇ 신상영 외(2017)는 취약 인구집단과 계층에 대한 위험도 인식을 조사
 - 서울에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계층 중에서 누가 각종 재난사고 위험에 가 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문 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
- ㅇ 취약 인구집단과 계층 전반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식한 점수는 67.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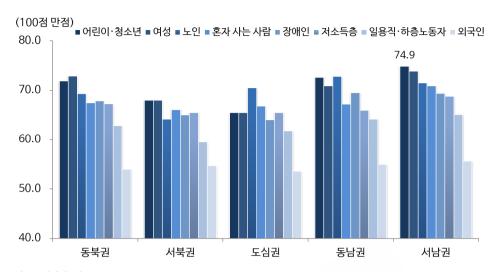
- 세부유형별로 어린이·청소년이 72.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여성(71.8점), 노인(70.2점), 혼자 사는 사람(68.3점) 등의 순



자료: 신상영 외, 2017

[그림 3-25] 취약 인구집단별 위험도 인식

- o 권역별로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을 살펴보면 동북권은 여성이, 도심권은 노 인이, 서남권은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높은 경향
 - 동북권은 여성(72.9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71.9점)이 위험하다고 인식함. 서북권은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도심권은 노인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70.5점으로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매우 높고, 동남권은 노인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72.8점으로 가장 높음. 그다음은 어린이·청소년(72.6점), 여성(70.9점) 순
 - 서남권은 서북권과 달리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음.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위험도는 74.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여성(73.9점), 노인(71.5점), 혼자 사는 사람(70.9점) 모두 70점을 웃도는 수준으로 민감하게 인식



자료: 신상영 외, 2017

[그림 3-26] 취약 인구집단별 위험도 인식_권역별

[표 3-10] 권역별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위험도 인식 정도

(단위: 100점 만점)

								(🗀 11 .	
구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혼자 사는 사람	장애인	저소득층	일용직: 하층 노동자	외국인
7	전체	72.2	71.8	70.2	68.3	68.1	67.2	63.4	54.8
	동북권	71.9	72.9	69.3	67.5	67.9	67.3	62.9	54.0
	서북권	68.0	68.0	64.2	66.1	65.0	65.5	59.5	54.7
권역	도심권	65.5	65.5	70.5	66.8	64.1	65.5	61.8	53.6
	동남권	72.6	70.9	72.8	67.2	69.5	66.0	64.2	55.0
	서남권	74.9	73.9	71.5	70.9	69.4	68,8	65.1	55.6

자료: 신상영 외, 2017

- o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적 특성을 검토
 - 서울의 위험과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에서 시민들은 서울이 각종 재 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위험한 것으로 인식함. 다양한 차원의 위험이나 재난·사고 중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위험은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경향

04

위험과 안전의 지역 분포와 시회경제적 특성

- 1_위험과 안전의 지역 분포
- 2_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취약계층

04 위험과 안전의 지역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1_위험과 안전의 지역 분포

- 서울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지역적 분포를 기존에 발표된 서울의 자치구별 통계자 료를 중심으로 제시
 - 2016년에 공개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를 이용해 서울 안전수준의 현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서울통계연보 등 서울시가 발표하는 자치구별 데이터를 참조하여 가시적인 현황을 제시

1) 서울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 ㅇ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발표
 - 중앙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다양한 위험관리와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함⁹⁾.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5단계로 등급을 부여¹⁰⁾

⁹⁾ 국민안전처,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얼마나 올랐나?", 2016. 12. 9.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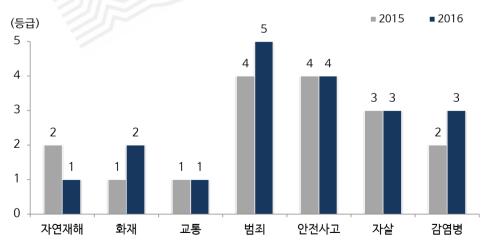
¹⁰⁾ 지역안전지수: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 매년 전년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위해지표(사망사고 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광역시, 도, 기초시, 군, 구 등 5개 유형으로 그룹을 지어 1에서 5까지 등급을 부여

- ㅇ 서울은 교통과 자연재해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범죄 분야에서는 5등급
 - 2016년 12월에 공개한 지역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세종
 - 서울의 경우 교통·자연재해 부문은 1등급, 화재 부문은 2등급, 자살·감염병 부문은 3등급, 안전사고 부문은 4등급, 범죄 부문은 5등급으로 나타나 범죄 와 안전사고 부문에서 안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서울은 화재, 범 죄, 감염병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등급이 하락

[표 4-1] 특별광역시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시도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서 <mark>울특별</mark> 시	2	1	5	4	3	3	1
부산광역시	3	2	4	1	5	5	5
대구광역시	3	3	3	2	4	4	2
인천광역시	4	2	2	2	4	3	4
	1	4	4	3	2	4	2
 대전광역시	2	3	3	3	3	2	4
울신광역시	4	4	2	4	2	2	3
세종특별자치시	5	5	1	5	1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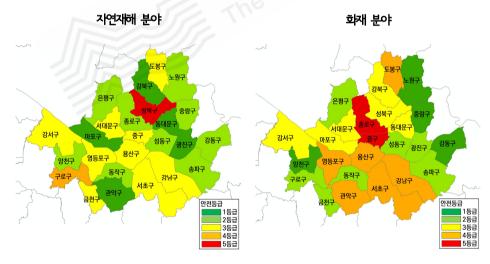
자료: 국민안전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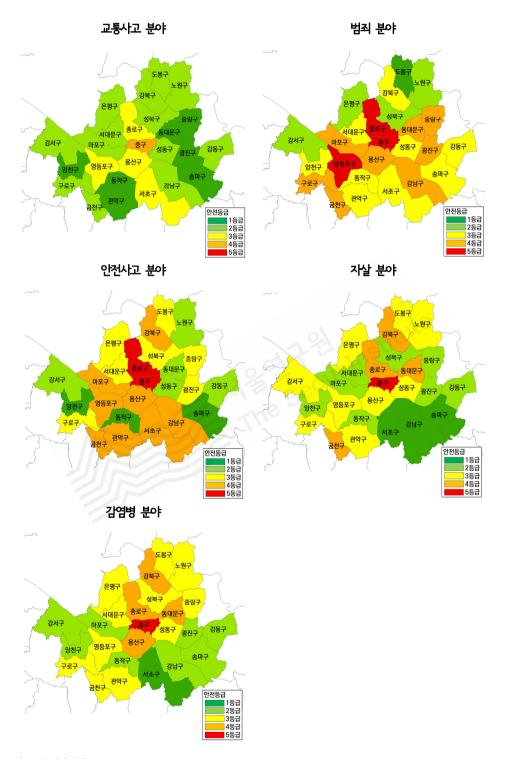
자료: 국민안전처, 2016

[그림 4-1] 서울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변화

- o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의 자치구별 등급을 살펴보면,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이 화재, 범죄, 안전사고 등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지수가 낮은 수준
 - 자연재해 분야에서 성북구가 5등급으로 나타난 반면, 강북구, 광진구, 동대 문구 등은 1등급임. 화재 분야에서는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이 5등급, 노원구, 중랑구 등 동북권과 강동구 등 동남권이 주로 1등급
 - 서울은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분야에서 등급이 높지만 도심권을 중심으로 다소 낮은 등급을 차지하며, 중구가 4등급으로 가장 낮음. 범죄 분야는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가 5등급인 반면, 도봉구가 1등급으로 가장 안전한 편
 - 안전사고는 종로구, 중구가 5등급이고, 상대적으로 송파구, 동작구, 양천 구가 안전함. 자살 분야에서 중구가 5등급인 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 구 등 동남권은 1등급으로 나타남. 감염병 분야에서도 중구가 5등급, 서초 구가 1등급
- o 이와 같이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위험 분야별로 취약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의 추정이 가능



[그림 4-2] 분야별 지역안전지수의 자치구별 등급



자료: 국민안전처, 2016

[그림 4-2 계속] 분야별 지역안전지수의 자치구별 등급

[표 4-2] 서울의 구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구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연 재해	강북구, 광진구, 관악구, 마포 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용산구, 도봉구, 서대문 구, 강서구, 금 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	성북구
화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동대문구, 성북 구, 강북구, 서 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용산구, 도봉구, 영등포구, 관악 구, 서초구, 강 남구	종로구, 중구
교통 사고	광진구, 관악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 구, 강서구, 구 로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중구	(©
범죄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성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 구, 동작구, 관 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 구, 마포구, 구 로구, 금천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안전 사고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 구, 구로구	용산구, 강북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 구, 서초구, 강 남구	종로구, 중구
가 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 구, 마포구, 양 천구, 동작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 구, 관악구	종로구, 동대문 구, 강북구, 금 천구	중구
감염병	서초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 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 구, 영등포구, 관악구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중구

자료: 국민안전처, 2016

2) 서울의 위험과 안전 분포

자연재해, 범죄,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사고, 자살 등의 자치구별 발생 현황을통해 서울의 위험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검토

(1) 자연재해 취약지역 분포

-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과도한 도시개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최근 자연재해
 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대 내수-하처범람 복합, 산사태 등이 발생¹¹⁾
 -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와 토지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재해에 위험한 취약지역 개발이 허용됨. 지속적인 방재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위험 해소가 되지 않아 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도시의 재해위험을 더욱 가중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변(폭우, 폭염, 가뭄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서 도시의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서울은 2010~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발생
 - 2010년 9월 말 집중호우로 인해 강서구, 양천구 등에 침수 피해사례가 발생함. 2011년 7월 말에는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
 - 신상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시가화 지역 중 42.3%가 하천 홍수위 이하 저지대에 분포하여 침수에 취약함. 또한, 전체 시가화 지역 중 약 4.5%가 경사 15°이상의 구릉지와 급경사지에 있어 산사태에 취약
- 주로 기후나 산, 하천 등의 자연적 영향을 받는 자연재해의 특성상 자치구 단위로 취약지역 분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

¹¹⁾ 신상영, 2016. 11,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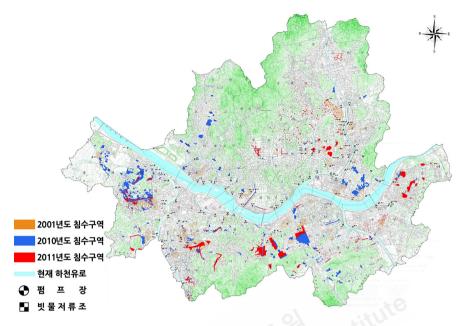
[표 4-3] 2010~2011년 자연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세대, 천 원)

-1=1=	داه	멘	주택침	수세대	π ō	 백
자치구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전체	41,529	34,253	18,664	14,851	22,137,878	31,141,885
종로구	71	148	28	63	54,370	37,800
중구	62	6	25	3	15,000	1,800
용산구	333	177	153	83	1,368,830	395,028
성동구	298	76	126	77	200,306	46,200
광진구	3,738	-	1,507	-	1,144,948	-
동대문구	134	663	59	324	35,400	194,400
중랑구	587	121	273	52	163,800	125,969
성북구	133	544	55	231	33,000	992,809
강북구	506	780	223	197	133,800	158,804
도봉구	-	21	حمً	6	1951 -	3,600
노원구	-	23	195	11	-	6,600
은평구	1,070	1,081	413	465	247,800	279,000
서대문구	277	692	178	315	106,800	189,000
마포구	1,221	506	563	245	337,800	147,000
양천구	5,622	2,321	2,336	1,018	1,401,600	652,000
	5,433	1,500	2,408	672	1,449,903	403,200
구로구	4,008	685	1,768	338	1,060,800	202,800
금천구	1,204	1,799	628	903	376,800	541,800
영등포구	2,479	4	1,249	2	749,400	181,200
동작구	2,752	2,829	1,365	1,393	819,000	1,050,800
 관악구	4,704	5,324	2,310	2,616	1,386,000	2,889,788
서초구	1,754	7,197	740	2,189	444,931	17,158,930
강남구	1,222	2,854	523	1,477	313,800	1,823,141
송파구	785	1,969	346	846	207,600	2,865,216
강동구	3,136	2,933	1,388	1,325	847,800	795,000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하천관리과, 2014,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통계」

주: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상황총괄표 기준(소상공 피해 집계는 제외됨)



자료: 신상영, 2016. 11.

[그림 4-3] 서울의 주요 침수파해지역 분포



[그림 4-4] 서울의 산사태 발생지역 분포

- o 서울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2010년 이후 증가
 -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됨¹²⁾. 2016년 기준 서울의 자연 재해 위험지구 현황은 총 10개 지역으로, 2010년 2개 지역에서 크게 증가
- o 서초구와 강서구가 자연재해 위험에 취약
 - 서초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4개 지역으로, 그 중 침수위험 지구 2곳과 붕괴위험지구 2곳이 각각 가등급을 받았음. 강서구는 침수위험 지구로 3개 지역을 지정

[표 4-4] 서울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구분	합계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소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소계	가등급	다등급	소계	가등급	나등급	
합계	10	8	1	1	7	6	1,0	3	2	1	
종로구	1	-	1	-14	25	Geo	ni-	1	1	1	
용산구	1	1	J	-	(1)e	1	_	-	-	-	
중랑구	3	2		1	-	_	-	-	-	-	
양천구	1	1	-	_	1	1	-	-	-	-	
강서구	3	2	_	1	3	2	1	-	-	-	
서초구	4	4	_	ı	2	2	_	2	2	-	

자료: 하천관리과, 산지방재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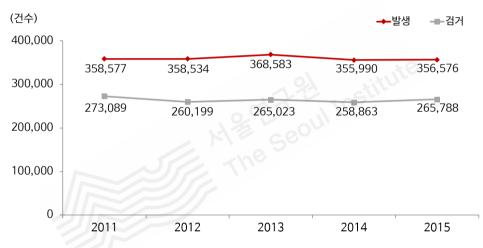
주: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¹²⁾ 국토교통부,「토지이용 용어사전」

(2) 생활안전 취약지역 분포

- ㅇ 서울 대도시의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 추세
 - 서울의 범죄 발생 현황은 2011년 358,577건에서 2013년 368,583건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함. 2015년 기준으로 356,576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 중 범죄 검거 건수는 265,788건으로 74.5%
 - 서울의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2015년 기준으로 126,401건 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5.4%인 82,680건이 검거됨.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잠시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그림 4-5] 서울의 범죄 발생 현황

- ㅇ 5대 범죄는 주로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발생
 - 2015년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강남구가 8,512건으로 가장 많음. 마포 구-영등포구 일대와 광진구-송파구 일대, 그리고 관악구에서도 5대 범죄가 비교적 많이 발생함. 도봉구(2,476건)와 성동구(3,190건)는 상대적으로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적은 편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2015

[그림 4-6] 서울의 구별 5대 범죄 발생 현황

[표 4-5] 서울의 5대 범죄 발생

(단위: 건수)

연도	합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 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뵁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뵁	검거
2011	132,939	85,500	258	242	956	789	5,252	4,682	54,412	20,089	72,061	59,698
2012	137,725	82,578	179	179	570	459	4,908	4,132	61,436	19,198	70,632	58,610
2013	132,966	79,345	152	146	420	334	5,387	4,568	61,585	20,022	65,422	54,275
2014	130,674	79,061	158	152	343	299	5,462	4,957	59,393	19,120	65,318	54,533
2015	126,401	82,680	163	156	276	257	5,449	5,069	55,307	21,842	65,206	55,356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5대 범죄 발생현황

ㅇ 서울은 화재 발생 증가 추세

- 서울의 화재사고는 2006년까지 줄어들다가 2007년 갑자기 반등함. 2010년 에 다시 떨어졌으나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 기준 서울의 화재 발생 건수는 5.92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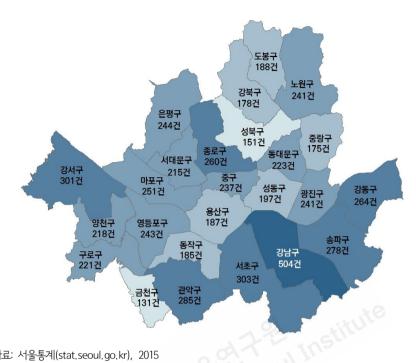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2015

[그림 4-7]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

o 동남권은 화재 발생에서의 취약 지역

- 2015년 기준 화재사고는 강남구가 504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금천구가 131건으로 가장 적음.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동남 권은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함. 그 외 강서구, 관악구, 종로구 등도 화재사고 발생이 많은 편임. 금천구와 성북구는 상대적으로 화재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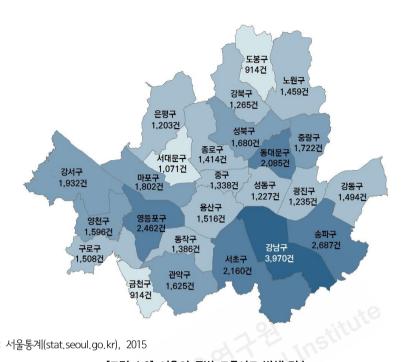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2015

[그림 4-8] 서울의 구별 화재 발생 건수

- ㅇ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오피스 밀집지역이 교통사고에 취약
 -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 교통사고는 41.665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 망자 수가 3.65명임. 강남구는 교통사고가 3,9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 ㅇ 교통안전지수는 양천구가 가장 높은 수준
 -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4년 교통안전지수13) 결과에 따르면, 양천구 (86.1점), 은평구(83.4점), 서초구(82.3점) 순으로 교통안전지수가 높음, 반 면 중구(65.2점), 종로구(68.4점), 동대문구(66.6점)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수준

¹³⁾ 교통안전지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로써 100에 가까울수록 교통안전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교통안전도가 낮음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2015

[그림 4-9] 서울의 구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안전지수 보고서」

[그림 4-10] 서울의 구별 교통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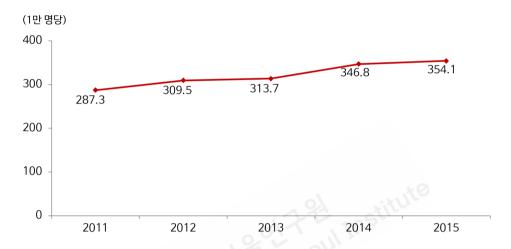
[표 4-6] 서울의 구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수, 명)

구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
전체	41,665	118,70	3,65	569,63
 종로구	1,414	222.88	4.88	1,179.94
 중구	1,338	197.55	5.96	1,342.23
 용산구	1,516	163.59	7.26	851.12
 성 동구	1,227	105.78	2.62	565.45
 광진구	1,235	107.48	4.53	464.84
동대문구	2,085	172,53	4.28	730.56
	1,722	127.87	3.82	542.02
 성 북구	1,680	117.50	4.05	486.84
 강 북구	1,265	129.53	4.78	503,55
도봉구	914	82,56	2.26	355,28
 노원구	1,459	85.85	2.59	362,84
은평구	1,203	81.43	3.18	332,88
서대문구	1,071	110.23	4.02	461.77
마포구	1,802	133.78	4.27	685.33
양천구	1,596	95.27	2.86	456.23
~~~~~~~~~~~~~~~~~~~~~~~~~~~~~~~~~~~~~	1,932	92.19	2.01	463.66
구로구	1,508	97.43	4.18	467.88
 금천구	914	96.75	3.90	536.37
영등포구	2,462	151.24	6.70	853.02
 동작구	1,386	118.10	1.70	483.07
관악구	1,625	111.65	2,27	403.57
 서초구	2,160	111.83	4.43	744.14
 강남구	3,970	151.78	3.44	977.38
송파구	2,687	113.17	2.40	563.76
강동구	1,494	96.57	4.96	459.51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2015

- 이 서울의 구조구급대 이용은 증가 추세
  - 서울의 구조구급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이용자가 354,840명으로 1만 명당 구조구급 이용률¹⁴⁾이 354.1명임. 구조구급대 이용자가 2011년 287.3명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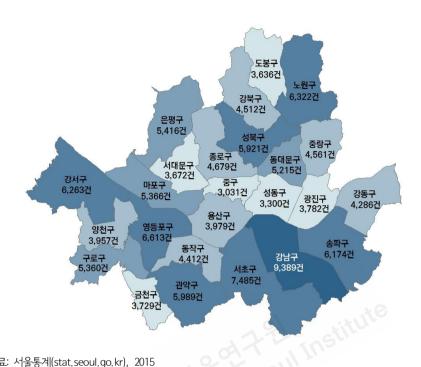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소방방재청

[그림 4-11] 서울의 1만 명당 구조구급 이용률

- 이 서울의 119 출동 건수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편
  - 서울의 119 구조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출동 건수는 127,481건, 처리 건수는 109,767건으로 나타남. 119안전센터는 2011년 114개소에서 116개소로 증가해 1개소당 담당인구가 89,909명에서 86,398명으로 감소
  - 119 출동 건수는 강남구가 2015년 기준 9,389건으로 가장 많음.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리고 노원구도 119 출동 건수가 한 해 동안 6,000건 이상으로 많은 편

^{14) 1}만 명당 구조구급 이용률 = {(구조인원 + 구급이송인원) ÷ 주민등록인구(내국인)} × 10,000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2015

[그림 4-12] 서울의 구별 119 출동 건수

[표 4-7] 서울의 119 <del>구조활동</del> 실적

(단위: 건수, 개소, 명)

	출동 건수	처리 건수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인구
 전체	127,481	109,767	116	86,398
종로구	4,679	3,854	6	25,831
 중구	3,031	2,611	5	25,147
용산구	3,979	3,624	5	46,668
 성 <del>동구</del>	3,300	2,798	4	74,251
광진구	3,782	3,348	3	120,123
동대문구	5,215	4,330	5	72,031
중랑구	4,561	3,938	4	103,477
 성 <del>북구</del>	5,921	5,308	4	114,819
강북구	4,512	4,022	4	82,718
도봉구	3,636	3,331	4	87,811
노원구	6,322	5,688	5	114,917

[표 4-7 계속] 서울의 119 구조활동 실적

(단위: 건수, 개소, 명)

	출동 건수	처리 건수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인구
은평구	5,416	4,547	4	124,480
서대문구	3,672	3,232	4	78,035
마포구	5,366	4,792	6	64,607
 양천구	3,957	3,273	5	96,906
 강서구	6,263	5,350	5	117,815
구로구	5,360	4,432	6	70,349
 금천구	3,729	3,156	2	118,142
 영등포구	6,613	6,056	5	75,701
 동작구	4,412	3,781	4	100,160
 관악구	5,989	4,836	4	127,416
 서 <u>초</u> 구	7,485	6,264	6	74,461
 강남구	9,389	8,041	5	115,299
 송파구	6,174	5,068	6	110,050
 강 <del>동구</del>	4,286	3,714	5	91,732
기타	432	373	-	-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2015; 재난대응과, 「119 출동 및 처리 건수」,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19인전센터 개소」

# (3) 건강 취약지역 분포

-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¹⁵는 33.3명으로 자살률이 OECD 33개
   국 중 1위
  - 2015년 기준 서울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0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나타남. 자살률은 강북구(30.6명)와 동대문구(28.4명)가 비교적 높은 반면, 서초구(15.2명)가 가장 낮은 편

 $^{^{15)}}$  자살률: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div$  연앙인구)  $\times$  100,000



자료: 통계청, 2015, 「사망원인통계」

[그림 4-13] 서울의 구별 인구 10만 명당 지살률

- o 최근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
  -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해외 유입은 전년보다 19% 증가함¹⁶⁾. 은평구, 구로구,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등은 한 해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자가 800명 이상으로 많은 반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은 감염자가 400명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¹⁶⁾ 질병관리본부, 2016, "2015년 감염병 감시연보"

[표 4-8]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제1군	제2군	제3군	 간연병	제4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구분	감염병	감염병	10 5				
	발생	발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합계	391	7,602	7,349	319	150	10	
종로구	1	41	128	7	-	-	
중구	4	71	132	15	2	-	
용산구	11	120	185	12	3	-	
성 <del>동구</del>	16	328	234	8	7	-	
	16	222	291	12	5	_	
동대문구	11	411	333	16	6	1	
중랑구	17	345	354	14	5	-	
성북구	11	378	296	14	1	-	
강북구	20	237	295	23	1	-	
도봉구	15	165	255	14	2	_	
노원구	19	382	405	14	4	-	
은평구	23	590	317	11	2	<del>-</del>	
서대문구	11	212	188	7	4	-	
마포구	9	322	290	10	3	-	
 양천구	25	416	309	15	5	1	
 강서구	24	393	377	13	8	1	
구로구	19	438	376	15	10	-	
금천구	8	160	260	7	4	-	
영등포구	11	378	358	16	2	-	
동작구	27	345	297	10	6	_	
관악구	20	257	503	15	7	1	
서초구	16	385	192	7	12	-	
강남구	25	385	311	11	29	2	
 송파구	21	423	358	14	14	1	
강동구	11	198	305	19	8	3	

자료: 생활보건과, 2015

주: 제1군 감염병 - 콜레라·장티푸스·피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총 6종

제2군 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수두·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12종

제3군 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질 병으로 말라리아-결핵·한센병·수막구균성수막염·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 등 22종

제4군 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 페스트·황열·뎅기열·바이러스성출혈열·두창·보툴리눔독소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9종

지정감염병 - 이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시활동이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2_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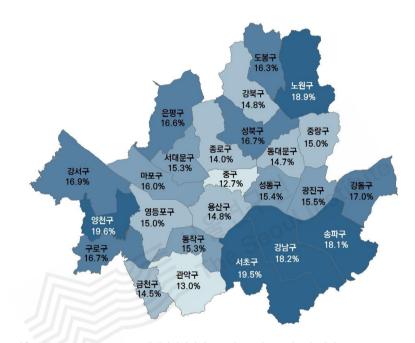
- o 위험요소들의 지역적 분포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
  - 연구진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해 위험의 지역적 특성을 유추함.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노인, 1인가구,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의 인구 구성의 특성과 위험의 상관성을 분석

## 1) 안전취약계층의 분포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노인은 위험한 환경의 노출과 안전문제에 취약한 대표적인 안전취약계층
  -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이나 여성, 노인은 어른과 남성에 비해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됨. 이들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피해가 심각
- o 어린이·청소년과 여성, 노인은 신체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해당
  - 여성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안전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도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발적 범죄나 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등에 여성과 아동은 상대적으로 취약
  - 노인은 생활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에 특히 취약하며, 더 나아가 노인빈곤 문제 등의 사회경제적 위험에도 노출됨.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 하면서 이들의 안전문제도 중요
- o 서울의 어린이·청소년은 송파구와 강남구에 가장 많이 거주
  -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¹⁷⁾ 은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119,209명)와 강남구(104,806명)에 특히 많이 거주

^{17) 0}세~18세: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따른 청소년 인구로, 19세 미만인 인구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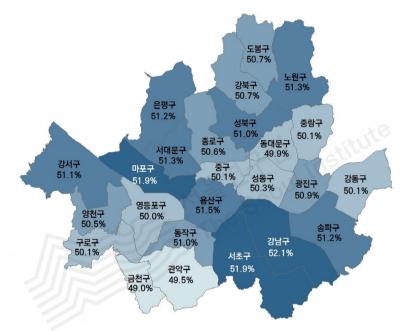
- ㅇ 자치구별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 비율은 동남권이 높은 편
  - 자치구별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 비율은 양천구가 19.6%로 가장 높고, 서초 구(19.5%), 강남구(18.2%), 송파구(18.1%)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높으며, 노원구도 18.9%에 달함. 특히 중구(12.7%), 종로구(14.0%) 등의 도심권과 관악구(13.0%)가 어린이 청소년 비율이 낮은 편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그림 4-14] 서울의 구별 어린이·청소년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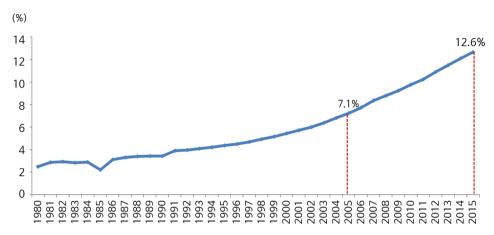
- o 서울의 여성은 특히 송파구. 강서구에 많이 거주
  - 서울의 여성은 송파구(337,861명), 강서구(301,127명), 강남구(300,070명), 노원구(294,596명)에 특히 많이 거주
- o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의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편
  - 서울의 여성인구 비율은 강남구가 52.1%로 가장 높음. 서초구(51.9%), 송 파구(51.2%) 등 동남권과 마포구(51.9%)의 여성인구 비율도 높은 편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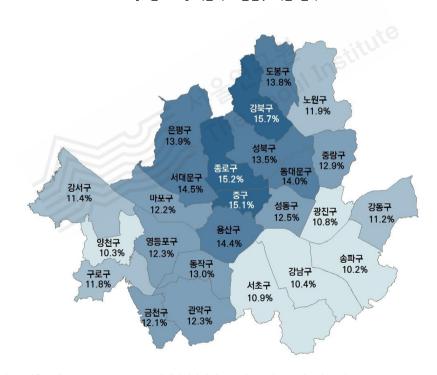
[그림 4-15] 서울의 구별 여성인구 비율

- ㅇ 고령화 진행에 따른 서울의 노인인구 증가
  - 서울은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1%를 넘어가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압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2.6%에 이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노인인구 비율은 7년 뒤인 2026년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서울시·서울연구원, 2016)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그림 4-16] 서울의 노인인구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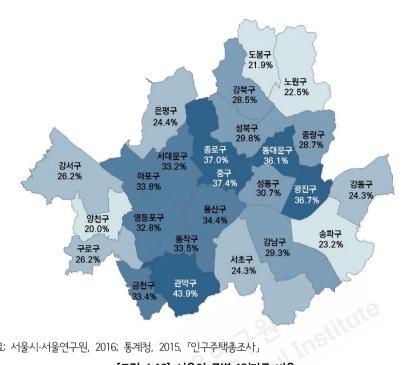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포함

[그림 4-17] 서울의 구별 노인인구 비율

- ㅇ 자치구별 노인인구의 비율은 도심권을 비롯하여 강북 지역이 높은 수준
  - 서울의 자치구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강북구(15.7%), 종로구 (15.2%), 중구(15.1%)가 높은 반면, 송파구(10.2%), 강남구(10.4%), 서초구 (10.9%)는 낮은 편
- ㅇ 노인의 안전문제, 노후안정 등에 관한 정책 수요가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문제, 노인빈곤층 문제 등 노년기 위험이 등장함. 더불어 그동안 노인들이 특히 취약했던 생활 안전이나 보행안전 등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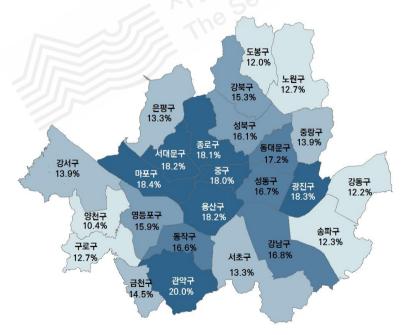
#### 2) 서울 도시의 가구구성 변화_1인가구의 증가

- ㅇ 저성장 사회의 '나홀로족'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증가로 도시안전이 취약
  - 1980년 전체 가구 대비 4.5%에 불과하던 서울의 1인가구는 2015년 29.5%로 증가하였고, 3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족'생활을 하고 있음. 그 중 51.2%가 여성으로 남성 1인가구(48.8%)보다 많음(서울시·서울연구원, 2016). 경기침체로 인한 결혼 기피, 취업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개발이 필요
- ㅇ 1인가구는 고시촌이 있는 관악구와 대학가, 도심권 중심으로 거주
  - 2015년 기준으로 자치구별 1인가구의 비율은 관악구가 43.9%로 매우 높고, 그다음으로 중구(37.4%), 종로구(37.0%), 광진구(36.7%), 동대문구(36.1%) 지역에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
  - 서울시 전체 가구의 15.1%인 여성 1인가구는 25개 자치구 중 특히 관악구 (20.0%)에서 비율이 높음. 그다음이 마포구(18.4%), 서대문구(18.2%), 용 산구(18.2%), 종로구(18.1%), 중구(18.0%) 일대와 광진구(18.3%) 순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2016;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4-18] 서울의 구별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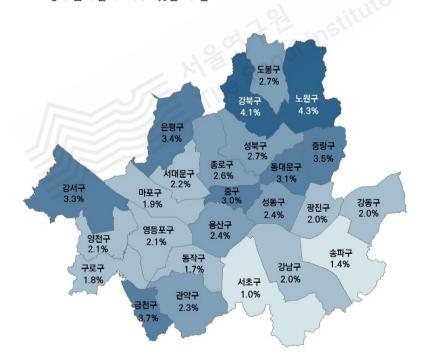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2016;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4-19] 서울의 구별 여성 1인가구 비율

#### 3) 경제적 취약계층과 위험노출

- o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위험에 노출
  - 주거지역의 범죄, 안전사고, 시설의 노후화, 오염된 환경 등의 잠재적 위험요 소들로 저소득계층의 생활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o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 서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5년 기준 총 259,446명(자치구 258,427명) 임. 노원구(24,734명), 강서구(19,891명), 은평구(17,145명)는 다른 자치구보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비교적 많은 편
  -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을 살펴본 결과, 노원구(4.3%)와 강북구 (4.1%)가 가장 높고 서초구(1.0%)와 송파구(1.4%)는 상대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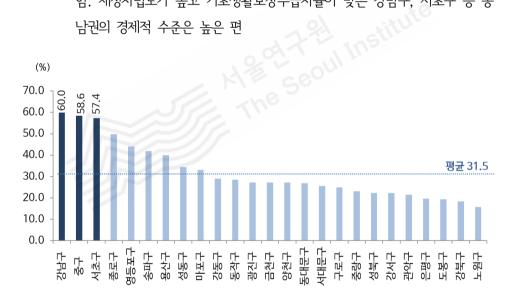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희망복지지원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

[그림 4-20] 서울의 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

#### 4) 자치구의 재정과 주거 상황

- o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역 분포와 더불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주택보급률과 노후 주택 비율을 통해 그 지역의 재정 상황과 주거환경을 검토
- 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
  - 재정자립도¹⁸⁾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구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확용
  -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60.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중구(58.6%), 서초구(57.4%), 종로구(50.0%) 순으로 나타남. 서울의 자치구 평균인 31.5%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자치구는 9개 지역에 불과함. 재정자립도가 높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이 낮은 강남구, 서초구 등 동남권의 경제적 수준은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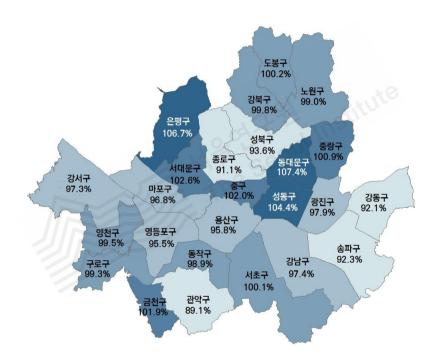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그림 4-21] 서울의 구별 재정자립도

¹⁸⁾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액 × 100)

- o 주택보급률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여건과 관련
  - 서울의 주택보급률¹⁹⁾은 2014년 기준 9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서울시·서울연구원, 2016). 자치구별로 동대문구(107.4%), 은평구(106.7%), 성동구 (104.4%), 서대문구(102.6%) 등 9개 자치구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
  - 반면 관악구는 주택보급률이 89.1%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음. 관악구의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은 1인가구가 많이 사는 고시원과 오피스텔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종로구(91.1%), 강동구(92.1%), 송파구(92.3%), 성북구(93.6%) 등도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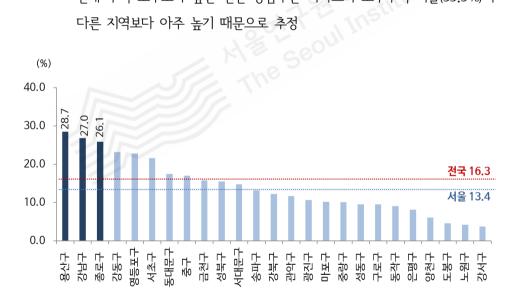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서울시 주택정책과, 2014

[그림 4-22] 서울의 구별 주택보급률

¹⁹⁾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 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주택보급률 = 총 주택 수/일반가구 수 × 100)

- o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은 적은 지역보다 붕괴나 화재,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 기 쉽고, 자연재해에도 취약
  - 2015년 현재 서울의 주택 수 279만 호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13.4%를 차지함.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 은 자치구는 용산구(28.7%), 강남구(27.0%), 종로구(26.1%)
- o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보다 노후도가 높은 편
  - 서울의 단독주택 중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비율은 43.9%임. 종로구 (66.8%). 중구(61.9%). 용산구(58.7%) 등 도심권은 단독주택의 노후도가 특히 높고. 성북구도 노후주택의 비율이 59.3%임. 서울의 연립주택 중 노후 주택의 비율은 25.1%임. 특히 동대문구(54.8%)와 성동구(50.7%)는 연립주 택의 노후도가 높은 편
  - 전체 주택 노후도가 높은 편인 강남구는 아파트의 노후주택 비율(33.5%)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높기 때문으로 추정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4-23] 서울의 구별 노후주택 비율

[표 4-9] 서울의 노후주택 현황

(단위: 호, %)

			30년	년 이상 경과	한 주택 비	율(%)	
	전체 주택 수	계	단 <del>독</del> 주택	아파트	연립 <del>주</del> 택	다세대 주택	비거 <del>주용</del> 건물 내 주택
 서울	2,793,244	13,4	43.9	10.0	25.1	2.5	28.6
종로구	43,550	26.1	66.8	9.6	12.1	3.5	39.2
중구	37,478	17.1	61.9	8.1	12.7	1.8	38.7
용산구	70,723	28.7	58.7	24.6	19.9	8,9	51.2
성동구	82,331	9.7	42.8	2.6	50.7	2.0	37.5
광진구	79,393	10.8	28.5	6.2	31.8	0.3	25.1
동대문구	98,203	17.6	54.0	3,9	54.8	7.7	42.7
중랑구	99,265	10.2	33.1	0.8	40.3	1.6	26.4
 성 <del>북구</del>	128,046	15.7	59.3	2.2	24.9	1.4	32.9
	91,806	12.4	49.5	0.1	19.4	1.2	34.7
도봉구	102,443	4.7	40.3	0.2	15.9	0.5	23.4
노원구	186,626	4.3	54.8	1.7	12.1	2.6	17.8
은평구	140,330	8.3	46.0	0.3	17.7	2.1	28.8
서대문구	92,885	14.9	55.3	4.8	23.8	5.2	41.0
마포구	116,135	10.3	45.2	1.0	42.0	8.7	23.5
양천구	134,097	6.2	33.9	2.9	48.3	0.4	31.4
강서구	179,045	3.8	32.0	0.8	33.8	0.3	26.2
구로구	118,047	9.6	39.7	3.0	32.6	6.1	41.0
금천구	57,096	15.9	40.5	9.7	37.1	5.0	45.5
영등포구	96,195	22.9	40.2	20.7	40.8	4.0	43.7
동작구	109,362	9.2	44.0	1.2	17.2	1.6	36.9
관악구	121,277	11.8	37.4	5.2	15.5	3.9	23.4
서초구	125,403	21.7	40.5	25.6	16.1	1.2	15.1
강남구	176,654	27.0	16.9	33.5	20.8	1.2	7.1
송파구	187,030	13.3	25.8	19.2	4.7	0.4	11.6
강동구	119,824	23,3	23,3	30.7	15.9	1,1	23.8

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주: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영업용 목적의 건물 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 5) 위험의 지역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상관관계

- ㅇ 위험의 지역 분포는 그 지역의 취약계층 집단 분포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어떤 상 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관계 정도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험 노출의 불평등 한 분배와 사회적 위험지위의 의미를 유추
- o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기본으로 지역수준 변수들의 관계를 검토
  -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서울통계정보시스템(stat.seoul.go.kr)을 토대로 자 료를 구축함, 단, 자치구별 정확한 집계 데이터가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함. 이러한 결과는 변수 간 의 인과성과 무관
  - 위험의 지역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상관분석을 위한 변수는 [표 4-10]과 같이 선정

[표 4-10] 상관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_	선정 <b>분석을 위한 주요</b>	7% Institute			
	구분	항목	지표		
	اک	범죄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 건수		
		화재	자치구별 화재 발생 건수		
지역의	위험 변수	교통사고	자치구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구조출동	자치구별 119 구조출동 건수		
		자살 <del>률</del>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 =		
		어린이·청소년	자치구별 어린이·청소년 인구 수		
		여성	자치구별 여성인구 수		
	취약계층 분포	노인	자치구별 노인인구 수(비율)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	117 118 64	1인가구	자치구별 1인가구 수 자치구별 여성 1인가구 수		
		저소득층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ᆸᆲᄖᄉ	지역의 경제 수준	재정자립도		
	보조 변수	지역의 주거 환경	주택보급률		

- ㅇ 지역의 위험 변수로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률을 선정
  - 2015년을 기준으로 범죄는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 건수, 화재는 자치구별 화재 발생 건수, 교통사고는 자치구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안전사고는 자 치구별 119 구조출동 건수, 자살률은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자 수를 선정함. 자연재해는 구별 통계수치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
- o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로 자치구별 취약계층의 분포와 이를 보완하는 자치구별 경제적 수준을 선정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노인, 1인가구, 여성 1인가구의 자치구 별 비율,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선정 됨.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수준 및 주거환경을 위한 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주택보급률을 선정
- 13가지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의 위험 변수들은 서로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이나 자살률과는 부적 상관성을 보이는 경향
  -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는 서로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반면 자살률은 범죄, 안전사고와 부(-)적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상관의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 는 지역들은 서로 유사하나, 자살률과 오히려 상반
- o 어린이·청소년과 여성, 1인가구의 수는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 과 관련
  - 자치구별 어린이·청소년과 여성의 수가 위험 변수들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모두와 강한 상 관성을 보이고 있음. 자살률은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치구별 어린이·청소년과 여성의 비율은 위험의 지역 분포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
  - 노인은 안전사고와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노인의 절대적 수가 많은

지역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자치구별 노인의 비율은 오히려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나는 반면, 자살륰과는 정적 상관성이 나타나는 경향

- 자치구별 1인가구 수는 범죄나 119 구조출동 등의 안전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 수는 범죄, 안전사고와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 화재, 교통과도 상당한 상관성이 있음. 그러나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은 위험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 무의미하게 나타나는 경향
-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이나 여성의 절대적 수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만큼 어린 이 청소년이나 여성이 위험한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 음. 1인가구의 절대적 수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밀 집지역, 고시촌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일 수 있음. 이런 지역이 범죄나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유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자살률만 강한 상관성이 나타나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범죄, 화재, 교통사고와 정적 상관성, 자살률과 부적 상관성이 나타남. 주택보급률
   은 범죄와 약한 부적 상관성을 보이는 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다른 위험들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난 데 비해 자살률과는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이 높은 지역이 자살률도 높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노인과 상당한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와는 상당한 부적 상관성
  - 재정자립도는 범죄, 화재, 교통사고와 상당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살률과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범죄, 화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자살률은 낮은 편
  - 주택보급률은 유일하게 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상관정도는 비교적 약한 편임. 주택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 범죄가 더많이 발생한다고 추정

[표 4-11] 위험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범죄	화재	교 <u>통</u> 사고	안전 사고	자살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기초 생활 수급	재정 자립도	<i>주</i> 택 보급률
범죄	1												
화재	.826**	1											
교통 사고	.831**	.794**	1										
인전 사고	.762**	.745**	.838**	1									
자살률	448*	374	395	475*	1								
어린이· 청소년	.462*	.487*	.537**	.664**	348	1					vie		
여성	.503*	.483*	.537**	.680**	309	.975**	1	7%		ıstii'			
노인*	.336 (527**)	.284 (460*)	.371 (485*)	.606** (456*)	120 (.515**)	.847** (724**)	.921** (683**)	300					
1인 가구	.553**	.381	.394	.516**	182	.435*	.601**	.642**	1				
여성 1인 가구	.603**	.480*	.487*	.622**	233	.558**	.705**	.728**	.975**	1			
기초 생활 수급 자율	371	345	-,361	207	.684**	173	152	.049 (.468*)	168	175	1		
재정 자립도	.472*	.540**	.553**	.308	461*	138	219	448*	227	196	495*	1	
주택 보급률	398 *	244	251	272	.310	172	218	120	368	354	.343	158	1

^{*} p < 0.05, ** p < 0.01

주: ()는 자치구별 노인인구 비율과의 상관계수 값임

# 05

# 안전 서울을 위한 함의

- 1_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_안전 서울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05** 안전 서울을 위한 함의

#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적 분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과 안전의 형평성 문제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규명
  - 위험과 안전의 격차와 형평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25개 자치구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특성과 안전의 관련성 을 제시
- 3장에서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권중(2014)과 신상영(2017)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 시민들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적 특성을 검토
- ㅇ 서울의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
  -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미만의 저소득층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서울을 더 위험하게 인식함. 30대, 화이트칼라 종사자, 대학원 이상의교육수준 집단 역시 서울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 큼. 지역적으로는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권역보다 비교적 서울을 더 안전하다고 인식함. 정보에 민감한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의 위험도 인식이 높은 특성
- ㅇ 시민들은 서울이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위험한 것으로 인식
  - 2017년 설문조사 중 서울의 재난·사고 위험도 인식에서 집단별로 단순노무 중사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고소득 가구는 가장 덜 위험하다고 인 식함. 권역별로는 도심권 거주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함.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기 쉽고 취약성이 드러난 계층들의 위험도 인식이 더 높 은 것으로 추정

- o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서울에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위험 분야가 상이
  -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은 30대, 사회생활 관련 위험은 20대,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직업군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임. 경제생활 관련 위험 외에 블루칼라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화이트칼라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 오히려생애주기 관련 위험과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더 취약하다고 인식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이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
  - 도심권을 비롯하여 동남권, 서남권 등 강남지역의 시민들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서북권 시민들은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
- o 서울 시민들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과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본인에게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본인에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 60대 이상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함. 블루칼라 직업군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의 저소득층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인식
- 시민들은 향후 서울에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가장 증가할 것으로 인식함. 특히 실업, 빈곤 등의 경제생활이나 노후의 생계문제 등에 더 민감하게 인식
  - 2014년 설문조사에서 특히 블루칼라 직업군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향후 증가 인식도 다른 계층보다 높음.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는 다른 계층과

달리 사회생활 관련 위험의 인식이 가장 높음. 이들은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 재난 등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을 더 높게 인식

-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재난·사고 중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음. 특히 여성은 생활·강력범죄 관련 위험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모든 재난·사고에 대한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에 민감
  - 모든 차원의 재난·사고에 대해 학생과 가정주부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함.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에서 서남권 이 가장 높음. 생활·강력범죄 관련 위험도 인식에서도 서남권이 가장 높은 반면, 도심권은 매우 낮은 수준
- o 서울 시민들은 위험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TV와 인터넷(SNS)을 이용해 획득
  - 2014년 조사 결과, 위험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출처에 대해 TV를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매체에서 위험 관련 기사나 정보를 접했을 때 시민들은 경 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와 건강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해 큰 두려움
  - 2014년 조사에서 위험과 관련한 매체의 정보로 인한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남.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와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가 특히 큼. 블루칼라 직업군은 건강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큰 편
  - 특히 서북권에 사는 시민들은 위험 관련 매체정보 접촉 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이에 비해 도심권에 사는 시민들은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나 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 전문가, 주변인, 시민단체는 높은 반면, 정부나 언론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 2014년 조사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 정

부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전문가, 정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도심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낮음. 서북권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특히 높은 편

- o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만족도는 낮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역량도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
  - 2017년 설문조사에 나타난 서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 기관의 안전관리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남자, 50대, 600만 원 이상의 고소 득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가장 높고, 동남권, 서남권 등 강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역량은 낮게 평가됨. 권역별로 도심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남권, 동북권 순
- o 취약 인구집단과 계층에 대한 위험도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
  - 2017년 조사 결과, 취약 인구집단·계층 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함. 그다음으 로 여성, 노인 혼자 사는 사람 순으로 위험하다고 인식
  -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은 여성이, 도심권은 노인이, 서남권은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함. 서남권은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북권은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
- 위험과 안전 인식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적 특성을 통해 볼 때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주거지역 등에 따른 특정 집단들이 특정 위험을 더 민감하게 인식
- 4장에서는 서울의 객관적인 위험과 안전의 분포가 어떤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가를기존에 발표된 서울의 25개 자치구별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가시적인 현황을 제시
- o 2016년 발표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범죄와 안전사고 부 문에서 안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서울은 교통, 자연재해 부문이 1등급, 화재 부문이 2등급, 자살, 감염병 부문이 3등급, 안전사고 부문이 4등급, 범죄 부문이 5등급으로 나타남. 특히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등급 하락
-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이 화재, 범죄, 안전사고 등에서 전반적으로 안전 지수가 낮고, 성북구는 자연재해에 취약
- o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과도한 도시개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 증가
  - 서울은 2010~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시의 취약성이 증가함. 2016년 서울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10개 지역으로 2010년(2개 지역)보다 8곳이 늘어남. 서초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된 곳은 4개 지역이고, 강서구는 3개 지역, 중랑구는 3개 지역이 위험지구 로 지정
- ㅇ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현황 등을 통해 생활안전 취약지역을 검토
  - 서울의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주로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함. 2015년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강남구가 가장 많고, 영등포구, 송파구, 관악구 등에서도 비교적 많이 발생
  -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동남권은 화재사고 취약지역 임.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오피스 밀집지역은 교통사고에 취약함. 서울 의 119 출동 건수는 강남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 구, 강서구, 노원구 순
- ㅇ 자살률과 법정감염병 유입의 증가는 건강안전에 취약한 서울의 실정을 의미
  - 2015년 기준 인구 자살률은 강북구, 동대문구가 비교적 높은 반면, 서초구 가 가장 낮음. 최근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추세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등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적은 편
- 위험요소들의 지역적 분포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서울의 25개 자치구 단위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시
  - 대표적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지역별 분포, 안전취 약계층으로 부상 중인 1인가구의 분포를 조사

- 2015년 기준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송파구와 강남구에 특히 많이 거주하며, 여성은 특히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에 많이 거주함. 자치구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도심권을 비롯한 강북 지역이 높은 편
- 서울 도시의 가구구성 변화에 따라 증가한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는 도시 안전에 취약함.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은 관악구가 가장 높고, 이 들은 고시촌이 있는 관악구와 대학가, 도심권을 중심으로 거주
-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움. 범죄,
   안전사고, 시설의 노후화, 오염된 환경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들로 저소득계층의 생활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을 살펴본 결과, 노원구, 강북구는 높은 반면, 서초구, 송파구는 낮은 수준
- 취약계층의 지역 분포와 더불어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 주택보급률과 노후주택 비율을 통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유추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임. 주택보급률은 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9개 자치구가 100%를 넘은 데 비해 관악구는 가장 낮은 비율
- 위험의 지역 분포는 그 지역의 취약계층 집단의 분포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별 위험 변수 5가지와 사회경제적 변수 8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
  - 우선 위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서로 유사하나, 자살률과는 오히려 상반
  -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이나 여성의 절대적 수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 그만큼 어린이·청소년이나 여성이 위험한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1인가구는 범죄, 안전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는 범죄,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모두와 상관성을 보임. 노인인구의 바율이 높은 지역은 범죄, 화재, 교통사고, 구조출동 발생 건수가 적고, 자살률이 높은 수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노인 비율, 자살률과 정적 상관성, 재정자립도와는 부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이 높은 지역은 노인이 많 고, 자살륰도 높은 편
-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범죄, 화재,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나, 자 살률은 낮을 가능성이 있음. 주택보급률은 유일하게 범죄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갖고 있어 주택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 이 발생

#### ㅇ 자료 분석의 한계

- 자치구별로 정확한 집계 데이터가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자치구별 자료 획득이 힘들어 제한된 지표들로만 결과를 제시함. 취약계층 집단의 분포는 주민등록인구상의 자료로, 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와 활동영역이 다른 경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존재
- 실제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할 때 개인 및 집단의 위험노출이나 위험인식 등은 자치구보다 좀 더 작은 단위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나, 자치구가 행정적 의미의 자율성을 갖고 있어 비교가 유의미
- 상관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제한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는 한계 가 발생함. 이러한 결과는 변수 간의 인과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추후 지표 변수들의 통제와 함께 더 고차원적인 분석이 필요

# 2_안전 서울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사회계층적 형평성과 지역적 안전 분포를 고려한 안전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성 제고
  - 범죄, 교통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위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의 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및 불안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시민 대상별 맞춤형 안전 정책도 마련할 필요
- ㅇ 시민들의 안전권 보장과 안전 복지를 위한 서울시의 역량 강화 필요
  -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계층적·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함. 관련 지역의 재정수준과 안전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사회적 유대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안전사각지대의 관리 강화도 필요
- 도시공간의 취약성 고려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서울시는 도시공간의 지역적 취약성을 적극 고려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생활 안전, 재난 안전, 사회 안심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와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 역량을 강화해 안전 복지도 제고할 필요
- 전문가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 기업, 정부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안전도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확보
  - 소통과정에서 전문가 주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안전도시 거버넌 스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객관적인 '안전'부터 주관적인 '안심'까지 포함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권도 보장할 필요

# 참고문헌

국민안전처,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얼마나 올랐나?", 2016. 12. 9.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2016, "지역안전등급 표".

김도영, 2012, "소득수준별 보건이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 분석", 「사회과학연구」 23(3).

김미숙·이상영·정진욱·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근·류창수, 2015,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영란,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 - 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담론 201」14(3).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한국사회학」 41(3).

김형용, 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44(2).

김홍균, 2012,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인권과 정의」 431.

나채준, 2014,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법제 개선방안", 「2014 가족정책 및 가족시례관리 포럼」,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박광동·김은정, 2013,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 어린이, 노인, 신종레저 안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서울시, 200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 201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서울연구원, 2016, 「한눈에 보는 서울 2016」.

성기환, 2009,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강화방안", 「한국방재학회지」 9(1).

손수인·신영전·김창엽, 2010, "저소득층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0(1).

송은철·신영전, 2014,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4(3).

송인한-이한나, 2011, "사회경제적 박탈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2(3).

신상영 외, 2017, 「안전서울 미래비전 및 정책의제 설정(시민안전보고서)」, 서울연구원.

신상영, 2012,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전략", 「정책리포트」 108, 서울연구원.

신상영, 2015. "안전문제에 대한 세계 동향과 서울시의 도시안전 발전방향", 「세계와 도시」 7호.

신상영, 2016. 11,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도시계획".

신상영·김혜령, 2011. "토지이용특성과 침수피해지역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연구원.

신상영·조권증, 2014. "서울의 범죄 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정책리포트」 161. 서울연구원.

신지영·임영신·홍남희·김나영·배채영, 2013,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악전도시 서울플래 기획위원회, 2017.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안전 - 재난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로 가는 길".

오유경, 2014,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2014, "생활안전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미숙, 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이영남, 2009, "사회취약계층의 안전대책", 치안정책연구소.

이용재, 2010,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17(1).

이재열, 2006,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와 한국사회의 위험", 「삼풍사고 10년 교훈과 과제」, 보문당.

이재열, 2008,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발전방안", 「선진인류국가를 위한 비전: 2008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정책연구총서』, 서울: 경제·인무사회연구회.

이재열·김홍중,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열·정진성, 2010, "결론: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사회의 질",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지범, 2015,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2016, "안전사각지대 관리와 국민안전처의 역할", ISSUE PAPER 2016_02, 통권 35호.

정지범·류현숙, 2009, 「한국인의 사회위험 지각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연구원,

정진엽, 2012, "우리 사회에서 예견되는 사회적 위험", 1차 KISTEP 미래포럼, (사)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기'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조권중, 2017,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 서울연구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201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질병관리본부, 2016, "2015년 감염병 감시연보".

황선재, 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35(1).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Newbury Park.

Forkenbrok, D. J., Schweitzer, L. A., 1999, "Environmental Justice in Transportation Planning", APA Journal.

Glaeser, E. L., Vigdor, J. L., 2001, "Racial Segregation in the 2000 Census: Promising News", The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on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Kawachi, I., Kennedy, B. P., 1999,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pathways and mechanisms", **Health Service Research**, 34(1).

Massey, D. S., Denton, N. 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Talen, E., 1998, "Visualizing Fairness - Equity maps for Planners", APA Journal,

Wilkinson, R.,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Bloomsbury Press.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stat.seoul.go.kr/(서울통계정보시스템)



# **Abstract**

# Risks and Safety: Citizens' Perception and Regional Attribute

Kwonjoong Choh · Sang-Young Shin · Ji-Won Choi

Policy awareness and Citizens' Interest in safety rise while experiencing several disasters in Seoul. City Seoul has faced the risk society that risks consist ordinary life in the trends of urbanization and a aging society. In the issues of safety, equity problem should be examined seriously. Social inequality is interwoven with distributions of safety and risks. The socially weak groups may experience more risks and less safety around disasters. Citizens' perception about risks and safety may vary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nd residence. Regional distribution of disaster risks may differ alongside with regional attributes.

This study attempts to illustrate citizens' perception about risks and safety issues in Seoul. Socio-strata including gender, age, education, income, occupation and residence show different levels of perception about risks and safety. This resul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ubjective emotion of safety while it confirms inequal distribution of risks.

Regional distribution of disasters is illustrated according to regional attributes such as demographic composition including gender ratio, the elderly, children and poverty. These attributes are related each other. This result may confirm the importance of regional equity in distribution of safety and risks. The future study should attempt to formulate a equity policy about urban safety in Seoul.

# **Contents**

#### 01 Introduction

- 1_The Purpose of Study
- 2 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 02 Equity and Inequality on Risks and Safety

- 1_Perspective on Risks and Disasters
- 2_Equity Issues on Safety

# 03 Perception of Risks and Safety and Socio-strata Attributes

- 1_Citizens' Perception on Risk Society
- 2_Citizens' Perception on Safety and Disaster
- 3_Summary

# 04 Regional Distribution of Safety and Socio-economic Attributes

- 1_Regional Distribution of Safety and Risks
- 2 Socio-economic Attribute and the Weak Strata
- 3_Summary

# 05 Policy Implication

- 1_Implemented Safety Policies
- 2_Suggestions for the Safe Seoul

서울연 2016-BR-22

'위험과 안전' 사회적 인식과 지역적 분포

**발행인** _ 김경혜

**발행일** _ 2017년 3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208-5 9333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